

1	原本備旨大學集註章句序	原本備旨大學集註章句序
2	<p>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教人之法也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p> <p>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p> <p>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p> <p>一有聰明睿智者出於其間</p> <p>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p> <p>以復其性 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典樂之官 所由設也</p>	『大學』의 책은 옛날 太學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다. 하늘이 生民(사람)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仁義禮智의 성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건마는, 그 氣質을 받은 것이 혹 똑같지 못하다. 이 때문에 모두 그 본성의 소유함을 알아 온전히 함이 있지 못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聰明하고 敏智하여 능히 그 본성을 다한 자가 그 사이에 나옴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시어 억조 만백성의 군주와 스승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백성) 本性을 회복하게 하시니, 이는 伏羲 · 神農 · 黃帝 · 堯 · 舜이 하늘의 뜻을 잊고, 極(법칙)을 세운 것이요, 司徒의 직책과 典樂의 벼슬을 이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3	<p>三代之隆 其法寢備 然後王宮國都 以及閭巷莫不有學 人生八歲</p> <p>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p> <p>而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p> <p>以至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p> <p>而教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教 大小之節所以分也</p>	三代의 융성했을 때에 그 법이 점점 갖추어졌으니, 그러한 뒤에 王宮과 國都로부터 閭巷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사람이 태어난 지 8 세가 되면 王公으로부터 이하로 庶人의子弟에 이르기까지 모두 小學校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리가는 예절과 禮 · 樂 · 射 · 御 · 書 · 數의 글을 가르치고, 15 세에 이르면 天子의 元子 · 衆子로부터 公 · 卿 · 大夫 · 元士의 嫫子와 모든 백성의 俊秀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太學에 들어가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루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道(방법)을 가르쳤으니, 이는 또 學校의 가르침에 크고 작은 절차가 나누어진 이유이다.
4	<p>夫以學校之設 其廣如此 教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又如此 而其所以爲教 則又皆本之人君躬行心得之餘</p> <p>不待求之民生日用彝倫之外 是以當世之人 無不學 其學焉者無不有以知其性分之所固有</p> <p>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以盡其力 此古昔盛時 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而非後世之所能及也</p>	학교의 설치가 그 넓음이 이와 같고, 가르치는 방법이 그 차례와 節目的 상세함이 또 이와 가되, 그 가르침을 하는 것은 또 모두 인군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은 나머지에 근본하고, 민생이 일상생활하는 納倫의 밖에 구함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배운 자들은 그 성분의 고유한 바와 직분에 당연한 바를 알아서 각기 힘써 그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옛날 융성할 때에 정치가 위에서 높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 후세에서 능히 따를 바가 아닌 所以이다.
5	<p>及周之衰 賢聖之君不作 學校之政不修 教化陵夷 風俗頽敗 時則有若孔子之聖 而不得君師之位 以行其政教 於是獨取先王之法 誦而傳之 而詔後世 若曲禮少儀內則弟子職諸篇 固小學之支流餘裔 而此篇者則因小學之成功 以著大學之明法 外有以極其規模之大 而內有以盡其節目之詳者也</p> <p>三千之徒蓋莫不聞其說 而曾氏之傳 獨得其宗 於是作爲傳義 以發其意 及孟子沒 而其傳泯焉 則其書雖存 而知者鮮矣</p>	周나라의 쇠퇴과 미쳐 어질고 聖스러운 君主가 나오지 못하고, 학교의 정사가 닦아지지 못하여 교화가 陵夷(침체)되고 풍속이 무너지니, 이 때에는 공자 같은 성인이 계셔도 인군과 스승의 지위를 얻어 정사와 가르침은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훌로(다만) 先王의 법을 취하여, 외워 전하여 후세를 가르치시니, 『典禮』·『少儀』·『內則』·『弟子職』같은 여러 책은 진실로 소학의支流와 餘裔이며, 이 책은 소학의 성공을 위하여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내었으니, 밖으로는 그規模의 큼을 다함이 있고, 안으로는 그 절목의 상세함을 다함이 있다. 삼천 명의 문도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가 없건만은 曾氏의 전함이 훌로 그 宗統을 얻었다. 이에 傳義 지어 그 뜻을 발명했는데, 孟子가 별세함에 미쳐 그 전함이 끊기니, 그 책이 비록 남아 있으나 아는 자가 적었다.
6	<p>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異端虛無寂滅之教 其高過於大學而無實</p> <p>其他權謀術數一切以就功名之說 與夫百家衆技之流 所以惑世誣民 充塞仁義者 又紛然雜出乎其間 使其君子 不幸而不得聞大道之要 其小人不幸而不得蒙至治之澤 晦盲否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而壞亂極矣</p>	이로부터 이래로 俗儒들의 記誦과 詞章의 익힘이 그 공부가 小學보다 배가 되었으나 쓸데가 없었고, 異端의 虛無(老莊), 寂滅(佛法)의 가르침은 그 높음이 大學보다 더하였으나 실제가 없었으며, 기타 權謀術數로서 일체 공명을 이루는 학설과百家衆技의 부류들이 세상을 흐하게 하고 백성을 속여 仁義를 막는 자들이 또 紛然하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와서君子(위정자)로 하여금 불행하게 대도의 要諦를 얻어 듣지 못하게 하고, 小人(백성)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至治의 혜택을 얻어 입지 못하게 하여, 晦盲하고 否塞(비색)하며 反復하고 沈痼하여, 五季의 쇠퇴에 미쳐 무너지고 혼란함이 지극하였다.

	<p>天運循環 無往不復 宋德隆盛 治教休明 於是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 既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然後古者大學教人之法 聖經賢傳之指 7 粲然復明於世 雖以熹之不敏 亦幸私淑而與有聞焉 顧其爲書猶頗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 間亦竊附己意 補其闕略 以俟後之君子 極知僭踰無所逃罪 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p>	<p>天運이 循環하여,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송나라의 덕이 융성하여 정치와 교육이 아름답고 밝았다. 이에 河南程氏 두夫子(明道· 伊川)가 나오시어 孟氏의 전통을 접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처음 이 책을 높이고 믿어 表章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그 簡編을 차례하여 歸趣를 밝히시니, 그러한 뒤에야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쳐던 법과 聖經賢傳의 뜻이 찬란하게 다시 세상에 밝아지니, 비록 나의 不敏함으로로도 또한 다행히 私淑하여 들음에 참여하였노라. 다만 그 책이 아직도 佚失됨이 많았다. 그러므로 固陋함을 잊고, 뽑아 모으며 사이에 또한 나의 의견을 붙여 積略을 보충하고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노니, 참람하고 주제넘어, 그 죄를 도피할 수 없음을 지극히 알고 있으나,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어는 뜻과 배우는 자들의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의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p>
8	淳熙己酉二月甲子 新安朱熹序	
9	讀 大 學 法	讀 大 學 法
10	<p>朱子曰 語孟隨事問答 難見要領 惟大學 是曾子述孔子說古人爲學之大方 而門人 又傳述以明其旨 前後相因 體統都具 玩味此書 知得古人爲學所向 却讀語孟 便易入 後面工夫雖多 而大體已立矣</p>	<p>주자가 語孟隨事問答로 難見要領을 보았을 때 惟大學 是曾子述孔子說古人爲學之大方 而門人 又傳述以明其旨로 前後相因로 體統都具를 보았을 때 玩味此書 知得古人爲學所向로 却讀語孟로 便易入 後面工夫雖多로 而大體已立矣로</p>
11	<p>○ 看這一書又自與看語孟不同 語孟中 只一項事是一箇道理 如孟子說仁義處 只 就仁義上說道理 孔子答顏淵以克己復禮 只就克己復禮上說道理 若大學却只 統說 論其功用之極 至於平天下 然 天下所以平 却先須治國 國之所以治 却先須齊家 家之所以齊 却先須修身 身之所以修 却先須正心 心之所以正 却先 須誠意 意之所以誠 却先須致知 知之所以至 却先須格物</p>	<p>이 한 책을 보는 것은 또 자연 논어·맹자를 보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논어·맹자에서는 다만 한 가지 일이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예를 들면, 맹자께서 仁義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다만 인의상에 나아가 도리를 말씀하였고, 공자께서 顏淵에게 克己復禮로서 답하신 것에는 다만 극기복례상에 나아가 도리를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대학으로 말하면 통합하여 말씀하였으니, 그 功用의 지극함을 논할진대 천하를 평함에 이른다. 그러나 천하가 평하게 되려면 먼저 모름지기 나라를 다스려야하고,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먼저 모름지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야 하고, 집안이 가지런하려면 먼저 모름지기 몸을 닦아야 하고, 몸이 닦아지려면 먼저 모름지기 마음을 바루어야 하고, 마음이 바루어지려면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성실히 하여야 하고, 뜻이 성실해지려면 먼저 모름지기 지식을 지극히 하여야 하고, 지식이 지극해지려면 먼저 모름지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야 한다.</p>
12	<p>○ 大學 是爲學綱目 先讀大學 立定綱領 他書 皆雜說在裏許 通得大學了 去看 他經 方見得此是格物致知事 此是誠意正心事 此是修身事 此是齊家治國平天下事</p>	<p>대학은 이 학문을 하는 綱目이니, 먼저 대학을 읽어 綱領을 세우면 다른 책은 모두 잡설하여 이 속에 있다. 대학을 통달하고 다른 경서를 보아야 바야흐로 이것이 格物·致知의 일이며 이것이 誠意·正心의 일이며 이것이 修身의 일이며 이것이 齊家·治國·平天下의 일임을 보게 될 것이다.</p>
13	<p>○ 今且熟讀大學 作間架 却以他書填補去</p>	<p>이제 우선 대학을 익숙히 읽어 間架(빈칸)을 만들고, 다른 책으로써 메꾸어가도록 하라.</p>
14	<p>○ 大學 是通言學之初終 中庸 是指本原極致處</p>	<p>대학은 이 학문의 처음과 끝을 통틀어 말하였고, 종용은 이 본원의 지극한 부분을 가리켰다.</p>
15	<p>○ 問欲專看一書 以何爲先 曰先讀大學 可見古人爲學首末次第 不比他書 他書 非一時所言 非一人所記</p>	<p>묻기를 “오로지 한 책을 보고자 하는데 무엇을 먼저 삼아야 합니까?”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먼저 대학을 읽으면 예 사람들의 학문을 한 시작과 끝의 차례를 볼 수 있으니, 다른 책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른 책은 한 때에 말씀한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p>
16	<p>又曰 看大學固是著逐句看去 也須先統讀傳文教熟 方好從頭仔細看 若專不識傳文大意 便看前頭亦難</p>	<p>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때에는 진실로 글귀마다 하나한 보아야 할 것이나, 또 모름지기 傳文을 統讀하여 익숙하게 한 다음에 바야흐로 처음부터 자세히 보는 것이 좋으니, 만일 傳文의 大意를 전혀 모른다면 앞부분을 보는 것도 또한 어려울 것이다.</p>

17	<p>又曰 嘗欲作一說教人 只將大學 一日去讀一遍 看他如何是大人之學 如何是小學 如何是明徳 如何是新民 如何是止於至善 日日如是讀 月來日去 自見所謂溫故而知新 須是知新 日日看得新 方得 却不是道理解新 但自家這箇意思長長地新</p>	<p>또 말하기를 내 일찍이 한 말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노니, 다만 대학을 가지고 하루에 한 차례식 읽어 저 어떤 것이 이 대인의 학문이며, 어떤 것이 이 小學이며, 어떤 것이 明徳이며, 어떤 것이 이 新民이며, 어떤 것이 이 止於至善인가를 보아, 날마다 이와 같이 읽어, 달이 가고 날이 가면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른바 '溫故而知新'이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니,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아야 될 것이다, 이는 道理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자기의 意思가 자라나 새로워지는 것이다.</p>
18	<p>○ 讀大學 初間 也只如此讀 後來 也只如此讀 只是初間讀得 似不與自家相關 後來看熟 見許多說須著如此做 不如此做自不得</p>	<p>대학을 읽을 때에는 처음에도 다만 이와 같이 읽고,後來에도 다만 이와 같이 읽되, 다만 처음 읽을 때에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듯하다가 후래에 익숙히 보면 許多한 말씀이 모름지기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할 것이요, 이와 같이 工夫하지 않으면 안됨을 보게 될 것이다.</p>
19	<p>○ 讀書 不可貪多 當且以大學爲先 逐段熟讀精思 須令了了分明 方可改讀後段 看第二段 却思量前段 令文意連屬 却不妨</p>	<p>책을 읽을 적에는 많음을 탐해서는 안되니, 마땅히 우선 대학으로써 먼저를 삼아 段落마다 익숙히 읽고 精히 생각하여, 모름지기 了了하여 분명하게 하고서야 바야흐로 뒷 단락을 바꾸어 읽되, 第 2 의 단락을 볼 때에는 앞 단락을 생각하여 글 뜻이 연결되게 함이 無妨하다.</p>
20	<p>○ 問大學稍通 方要讀論語 曰 且未可 大學稍通 正好著心精讀 前日讀時 見得 前 未見得後面 見得後 未見得前面 今識得大綱體統 正好熟看 讀此書功深則用博 昔 尹和靖 見伊川半年 方得大學西銘看 今人半年 要讀多少書 某且要人讀此 是如何 緣此書却不多而規模周備 凡讀書 初一項 須著十分工夫了 第二項 只費得八九分工夫 第三項 便只費得六七分工夫 少間讀漸多 自通貫他書自著不得多工夫</p>	<p>묻기를 "대학을 조금 통함에 바야흐로 논어를 읽으려고 합니다"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가하니— 대학을 조금 통하였으면 바로 마음을 붙여 精讀함이 좋다. 전일에 읽을 때에는 전면만 보고 후면은 보지 못하며, 후면만 보고 전면은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大綱과 體統을 알았으니, 익숙히 읽는 것이 참으로 좋다. 이 책을 읽어 공력이 깊어지면 쓰임이 넓을 것이다. 옛날에 윤화정은 이천을 봤지 반년만에 바야흐로 대학과 西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반년동안에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한다. 내가 우선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으 어째서인가? 이 책은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규모가 두루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무릇 책을 읽을 적엔 첫 번째 1 항에 모름지기 십분의 공부를 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면 제 2 항에는 다만 8-9 분의 공부를 허비하면 되고, 제 3 항에는 다만 6-7 분의 공부를 허비하면 된다. 얼마동안 읽기를 점점 많이 하면 저절로 通貫되어, 다른 책은 자연히 많은 工夫를 하지 않아도 된다"</p>
21	<p>○ 看大學 俟見大指 乃及他書 但看時 須是更將大段 分作小段 字字句句 不可 容易放過 常時暗誦默思 反覆研究 未上口時 須教上口 未通透時 須教通透已通透後 便要純熟 直待不思索時 此意常在心胸之間 驅遣不去 方是此一段了 又換一段看 令如此數段之後 心安理熟 覺工夫省力時 便漸得力也</p>	<p>대학을 볼 때에는 大指를 보기를 기다려 다른 책에 미쳐야 한다. 다만 볼 때에 모름지기 다시 큰 단락을 가지고 나누어 작은 단락으로 만들어, 자자구구를 용이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 것이요, 恒時 暗誦하고 묵묵히 생각하며 반복하여 연구해서 아직 입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모름지기 입에 오르게 하고, 아직 通透하지 못했을 때에는 모름지기 通透하게 하고, 이미 通透한 뒤에는 純熟하기를 요하여, 곧바로 思索하지 않을 때에도 이 뜻이 항상 마음과 가슴 사이에 있어서 쫓아보내도 가지 않기를 기다려서야 바야흐로 이 한 단락을 마치고, 또 한 단락을 바꾸어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몇 단락을 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가 익숙해져서 공부하기에 힘이 덜드는 것을 느낄 때에 곧 점점 득력하게 될 것이다.</p>
22	<p>又曰 大學 是一箇腔子 而今却要填教他實 如他說格物 自家須是去格物後填教他實 著誠意亦然 若只讀得空殼子 亦無益也</p>	<p>또 말하기를 대학은 이 하나의 腔子(빈칸)이니, 지금에 이것을 메구어 꽉차게 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 格物을 말한 것에는 자신이 모름지기 격물한 뒤에 메꾸어 꽉 차게 하여야 한다. 誠意를 할 때에도 또한 이렇게 하여야 한다. 만일 빈 껍데기만을 읽는다면 또한 유익함이 없다.</p>
23	<p>○ 讀大學 岌在看他言語 正欲驗之於心如何 如好好色 惡惡臭 試驗之吾心 果能 好善惡惡如此乎 閑居爲不善 是果有此乎 一有不至 則勇猛奮躍不已 必有長進 今不知如此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p>	<p>대학을 읽는 것이 어지 그 言語를 봄에 잊으리오. 바로 이 마음에 어떠한가 經驗하려고 해야하니, 마치 好色을 좋아하듯이 하고 惡臭를 미워하듯이 힘을 내 마음에 시험하여, 과연 능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을 이와 같이 하는가. 한가히 거처할 때에 불선을 힘이 이 과연 이러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여, 하나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으면, 용맹하게 분발하고 뛰어 일어나 그치지 않아야 반드시 큰 進展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할 줄을 알지 못하면 책은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p>

24	又曰 某一生 只看得這文字透 見得前賢所未到處 溫公 作通鑑 言平生精力盡在此書 某於大學 亦然 先須通此 方可讀他書	또 말하기를 나는一生에 다만 이 문자를 보아 通透하여, 前賢들이 미처 보지 못하신 것을 보았노라. 司馬溫公이 通鑑을 짓고, '平生의 精力이 모두 이 책에 있다' 하였는데, 나도 대학에 있어 또한 그러하다. 먼저 모름지기 이 책을 통달하여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
25	又曰 伊川 舊日教人 先看大學 那時 未解說 而今有註解 覺大段分曉了 只在仔細看	또 말하기를 伊川이 옛날 사람을 가르치실 적에 제일 먼저 대학을 보게 하셨으니, 그 때에는 解說이 없었는데, 지금에는 註解가 있어 대단히 분명함을 느낀다. 다만 자세히 봄에 달려 있다.
26	又曰 看大學 且逐章理會 先將本文念得 次將章句來解本文 又將或問來參章句 須逐一令記得 反覆尋究 待他浹洽 既逐段曉得 却統看溫尋過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때에는 우선 章마다 하나하나 理會(理解)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먼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여 알고, 다음에 章句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또다시 或問을 가지고 장구를 참고하여, 모름지기 하나하나 기억하여 반복해서 찾고 연구하여 무젖기를 기다려 이미 단락마다 깨우쳤으면 다시 統合하여 보아 찾아야 한다.
27	又曰 大學一書 有正經 有章句 有或問 看來看去 不用或問 只看章句便了 久之 又只看正經便了 又久之 自有一部大學 在我胸中 而正經亦不用矣 然 不用某許多工夫 亦看某低不出 不用聖賢許多工夫 亦看聖賢底不出	또 말하기를 대학 한 책에는 正經이 있고, 章句가 있고, 或問이 있으니, 보아가고 보아오면 褐문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장구만 보아도 곧 될 것이요, 오래하면 또 다만 正經를 보면 될 것이요, 또 오래하면 자연히 한 ��의 대학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있어서 정경 또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허다한 공부를 쓰지 않는다면 또한 나를 보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요, 聖賢의 허다한 공부를 쓰지 않는다면 또한 성현을 보는 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28	又曰 大學解本文未詳者 於或問中詳之 且從頭逐句理會 到不通處 却看 或問 乃註腳之註腳	또 말하기를 대학에 본문을 해석한 것이 상세하지 못한 것을 或問에서 상세히 말하였으니, 우선 처음부터 글귀마다 理會하여 통달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거든 보라. 褐문은 바로 註腳의 註腳이다.
29	○ 某解書 不合太多 又先準備學者 爲他說疑說了 所以致得學者看得容易了	내가 글을 해석함에 너무 많이 할 것이 없고, 또 우선 배우는 자들을 대비하여, 疑問을 假說하여 설명하였으니, 이는 배우는 자들이 보기에 용이하게 하려고 해서이다.
30	○ 人只說某說大學等不略說 使人自致思 此事大不然 人之爲學 只爭箇肯與不肯 耳 他若不肯向這裏 略亦不解致思 他若肯向此一邊 自然有味 愈詳愈有味	사람들은 다만 '내가 대학등을 해석함에 간략히 설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다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학문을 함에는 다만 즐겨하는가 즐겨하지 않는가를 따질 뿐이니, 저들이 만일 이(學問) 속으로 향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간략해도 또한 생각을 다할 줄 모를 거이요, 저들이 만일 이 한 쪽으로 향하기를 즐겨한다면 자연히 재미가 있어 더욱 상세할수록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
31	大學集註章句大全	大學集註章句大全
32	I. 經文	제 1 편 경 문 (經 文). ♣ 경문은 대학의 총론으로 주희가 본 편을 경문이라 하고 나머지 편을 전문이라 이름 지었으며,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했다고 함.
33	○ 子程子曰	- 新安 陳씨가 말하기를 程子의 앞에 더한 "子"의 글자는 公羊傳의 注에 "子沈子"를 근거로 模倣한 것으로 後學에 의해 宗師 · 先儒를 칭하기에 이른 것이다.
34	○ 大學孔氏之遺書而初學入德之門也 於今可見古人爲學次第者獨賴此篇之存 而論孟次之學者 必由是而學焉則庶乎其不差矣	대학은 공씨의 유서이고 덕의 문으로 들어감에 있어 처음으로 배운다. 지금에 옛 사람들이 학문하는 순서를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편에 있는 것에 힘입어 논어와 맹자를 보는 것으로 이어지니 학자는 이로 반드시 말미암아서 배우면 즉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35		- 龜山 楊씨가 말하기를 大學 一篇은 道를 취하는 聖學의 지극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二程은 初學者들에게 대학을 읽을 것을 많이 말했다.
36		- 朱子가 말하기를 대학을 首尾가 의문스러운 곳이 없이 전부 관통하고, 그러한 뒤에 논어와 맹자에 이르러 또한 의문스러운 곳이 없고, 후에 가히 중용에 미친다고 했다.

37		- 어떤 要人은 먼저 대학을 읽음으로서 그 模範[規模]을 정하고 다음에 논어로서 그 근본을 세운 다음에 맹 자를 읽어 그 發越[기상이 빠어남]을 보고 그 후에 중용을 읽어 옛 사람들의 微妙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38		- 陳氏가 말하기를 모름지기 배우는 데에는 차례로 백성을 새로이 하는 德으로서의 여러 經의 理實이 담긴 綱領들을 제외하고 大學에서 설명하는대로 덕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論語로서 그 안에 지닌 내용을 操存하고, 또 그 다음에는 孟子로 충분히 넓은 단서를 체험하고, 세 가지를 대개 두루 聽고 나서 그 후에 中庸의 奧義를 본다. 또 말하기를 大學은 매우 큰 본보기로서 本末이 상실되거나 끊어짐이 없이 詳明하며 終始가 얹힘이 없어 學者들이 가장 먼저 講明하는 바가 당연하다.
39		- 新定 邵씨가 말하기를 다른 책에서는 平天下는 治國을 근본으로 삼고 치국은 齊家를 근본으로 삼고 제가는 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다. 수신은 正心에 근본하고 있다고 역시 말하고 있다. 만약 무릇 窶究하면 정심이 誠意에 근본하고 성의가 致知에 근본하며 치지가 格物에 있는 즉, 다른 책에서는 여섯가지 書籍이 이 篇을 말하고 있지 않다.
40	<01> 三綱領	1. 三綱領(삼강령).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41	00-01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
42	○ 程子曰 親當作新. 大學者大人之學也 明明之也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정자 말하기를 친은 신으로 바꿔야 당연하다고 했다. 대학은 대인의 학문이다. 명은 밝힘이다.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중리를 갖추어 있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43		- 朱子가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과 사물에 부여한 것을 일러 命이라 하고, 사람과 사물이 그것을 얻은 것을 일러 性이라 하고, 一身에 주인되는 것을 일러 心이라 하며, 하늘과 光明正大한 것에게 얻어 지니고 있는 것을 明德이라 이른다.
44		- 北溪 陳氏가 말하기를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의 理를 얻고, 하늘과 땅의 氣를 얻는다. 理와 氣가 함께 합하여진 것을 虛靈이라 한다.
45		- 黃氏가 말하기를 虛靈은 어둡지 않고 밝다. 衆理를 갖추어 모든 일의 德에 應한다. 衆理를 갖추었다 함은 德의 本體가 아직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應한다는 것은 德의 커다란 쓰임으로 이미 발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일에 응한다는 것인 즉 중리를 갖춘자가 하는 바의 것이다. 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밝은 것으로 어둡지 않고, 이미 발했다 함은 所謂 明德과 品節에 차이가 없다.
46		- 玉溪 盧씨가 말하기를 明德은 단지 이렇게 본래 마음이 虛한 것이고, 마음이 寂靈한 것이고, 마음의 感心을 오로지 살피는 것이다. 허라는 것은 오로지 공을 살피는 것이고, 명은 오로지 조를 살피는 것
47		- 동양 허씨가 말하기를 감
48	○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 明之 以復其初也 新者革其舊之謂也 言既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以去其舊染 之汚也 止者必至於是而不遷之意 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 言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 而不遷 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 而無一毫人欲之私也 此三者 大學之綱領也	다만 氣稟에 구애된 바와 人慾에 가리운 바가 되면 때로 어두울 적이 있으나, 그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땅히 그 발하는 바를 인하여 마침내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하여야 한다. 신은 옛 것을 고침을 이른다. 이미 스스로 그 명덕을 밝혔으면, 또 마땅히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쳐서, 그로 하여금 또한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제거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지는 반드시 이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 뜻이요, 지선은 사리의 당연한 극(표준)이다. 이는 명명덕과 신민을 다 마땅히 지선의 경지에 멈추어 옮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반드시 그 천치의 극을 다함이 있고, 일호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대학의 綱領이다.

49	00-02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50	○ 止者所當止之地 卽至善之所在也 知之則志有定向 靜謂心不妄動 安謂所處而安 慮謂處事 精詳 得謂得其所止	止는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곳이니, 바로 至善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안다면 뜻이 定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靜은 마음이 망령되어 동하지 않음을 이르고, 안은 처한 바에 편안함을 이르고, 려는 일을 처리하기를 정밀하고 상세히 함을 이르고, 득은 그 그칠 바를 얻음을 이른다.
51	00-03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물건에는 本과 末이 있고, 일에는 終과 始가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52	○ 明德爲本 新民爲末 知止爲始 能得爲終 本始所先 末終所後 此結上文兩節之意	明德은 本이 되고, 新民은 末이 되며, 知止는 始가 되고, 能得은 終이 되니, 본과 시는 먼저 해야 할 것이요, 말과 종은 뒤에 해야 할 것이다.
53	00-04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루고, 그 마음을 바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으니,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
54	○ 明明德於天下者 使天下之人 皆有以明其明德也 心者身之所主也 誠實也 意者心之所發也 實其心之所發 欲其必自慊而無自欺也 致推極也 知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 也 格至也 物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此八者大學之條目也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그 명덕을 밝힘이 있게 하는 것이다. 心은 몸의 주장하는 바이다. 誠은 성실함이고, 意는 마음의 發하는 바이니, 그 마음의 發하는 바를 성실하여, 반드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속임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致는 미루어 지극히 함이요, 知는 識과 같으니, 나의 지식을 미루어 지극히 하여 그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格은 이름이요, 物은 事와 같으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極處가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여덟 가지는 대학의 條目이다.
55	<02>八條目	2.八條目(팔조목)(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56	00-05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사물의 이치가 이룬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57	○ 物格者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吾心之所知無不盡也 知既盡則意可得而實矣 意既實則 心可得而正矣 修身以上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新民之事也 物格知至則知所止矣 意誠以下 則皆得所止之序也	물격은 물리의 지극한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음이요, 지지는 내 마음의 아는 바가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지식이 이미 극진해지면 뜻이 성실해질 수 있고, 뜻이 이미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루어질 수 있다. 수신 이상은 명명덕의 일이고, 제가 이하는 신민의 일이다. 물격과 지지는 그칠 바를 아는 것이요, 의성 이하는 모두 그칠 바를 얻는 차례이다.
58	00-06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59	○ 壹是一切也 正心以上皆所以修身也 齊家以下則舉此而措之耳	일시는 일체이다. 정심 이상은 다 수신하는 것이요, 제가 이하는 이것을 들어 볼 뿐이다.
60	00-07 其本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그 근본이 어지럽고서 끝이 다스려지는 자는 없으며, 후히 할 것에 박하게 하고서 박하게 할 것에 후히 하는 자는 있지 않다.
61	○ 本謂身也 所厚謂家也 此兩節結上文兩節之意	본은 몸을 이르고, 후히 할 것은 집안을 이룬다.

62	○ 右經一章 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 其傳十章則曾子之意 而門人記之也 舊本頗有錯簡 今因 程子所定 而更考經文 別爲序次如左	右는 經文 1章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曾子가 記述하셨고, 傳文 10章은 증자의 뜻을 문인이 기록한 것이다. 舊本(옛책)에 자못 錯簡이 있으므로, 이제 程子께서 정한 것을 따르고,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로 차례를 만들기를 左와 같이 하였다.
63	○ 凡傳文 雜引經傳 若無統紀 然文理接續 血脉貫通 深淺始終至爲精密 熟讀詳味 久當見之 今不盡釋也	모든 傳文은 經傳을 섞어 인용하여 統紀가 없는 듯하나, 文理가 이어지고 血脈이 관통하여, 깊고 얕음과 시와 종이 지극히 精密하니, 익숙히 읽고 자세히 음미하면, 오래되면 마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 해석하지 않는다.
64	II. 傳文	제 2 편 전 문 (傳文). ♣ 전문은 경문에 대한 각론으로서 증자가 경문에 대한 해설을 쓴 것을 주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놓았음. 책 종류에 따라 각장에 장명(章名)을 붙인 것도 있고 없고 하여 읽기 좋게 하기 위해 장명을 붙여 놓았음.
65	<01> 明明德	제 01 장 明明德 (明明德). ◇『書經』에서 인용한 말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덕을 밝혀 빛나게 하는 것에 귀착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66	01-01 康誥曰 克明德	康誥에 이르기를 '능히 덕을 밝힌다' 하였으며,
67	○ 康誥周書 克能也	康誥는 周書이다. 克은 能함이다
68	01-02 太甲曰 顧諟天之明命	太甲에 이르기를 '이 하늘의 明德을 돌아본다' 하였으며,
69	○ 太甲商書 顧謂常目在之也 謾猶此也 或曰審也 天之明命 卽天之所以與我而我之所以爲德 者也 常目在之則無時不明矣	太甲은 商書이다. 顧는 항상 눈이 거기에 있음을 이른다. 謾는 此와 같으니, 혹은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 하늘의 명덕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덕으로 삼은 것이니, 항상 눈이 여기에 있으면 때마다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70	01-03 帝典曰 克明峻德	帝典에 이르기를 '능히 큰 덕을 밝힌다' 하였으니
71	○ 帝典堯典 虞書 峻大也	帝典은 堯典이니 虞書이다. 峻은 큼이다.
72	01-04 皆自明也	모두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73	○ 結所引書皆言自明己德之意	인용한 바의 글이 모두 스스로 자기의 덕을 밝히는 뜻을 말했음을 맷은 것이다.
74	○ 右傳之首章 釋明明德	右는 傳文의 首章이니, 明明德을 해석하였다.
75	○ 此通下三章至止於信 舊本誤在沒世不忘之下	이로부터 아래 三章의 止於信까지를 통하여 舊本에 잘못되어 没世不忘의 아래에 있었다.
76	<02> 新民	제 02 장 新民 (新民). ◇盤銘에는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康誥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문왕의 시는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한 極致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극을 쓰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77	02-01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又日新	湯王의 盤銘에 이르기를 '진실로 어느 날에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하였으며,
78	○ 盤沐浴之盤也 銘名其器以自警之辭也 苟誠也 湯以人之洗濯其心以去惡 如沐浴其身以去垢 故 銘其盤 言誠能一日 有以滌其舊染之汚而自新 則當因其已新者 而日日新之 又日新之 不可略有間斷也	盤은 沐浴하는 그릇이요, 銘은 그 그릇에 이름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말이다. 苟는 진실로이다. 탕왕은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惡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그 몸을 목욕하여 때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 그릇에 銘한 것이다. 진실로 능히 하루에 그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씻어서 스스로 새로워짐이 있으면, 마땅히 이미 새로워진 것을 인하여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여, 조금이라도 間斷함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씀한 것이다.
79	02-02 康誥曰 作新民	康誥에 이르기를 '새로워지는 백성을 振作하라 1'하였으며,

80	○ 鼓之舞之之謂作 言振起其自新之民也	북치고 춤추게 하는 것을 作이라고 이르니, 스스로 새로워지는 백성을 振作함을 말한 것이다.
81	02-03 詩曰 周雖舊邦 其命維新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命이 새롭다' 하였으니,
82	○ 詩大雅文王之篇 言周國雖舊 至於文王能新其德以及於民 而始受天命也	시는 大雅 文王篇이다.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문왕에 이르러 능히 그德을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까지 미쳐서 비로소 天命을 받았음을 말한 것이다.
83	02-04 是故 君子無所不用其極	이러므로 군자는 그極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84	自新新民 皆欲止於至善也	自新과 新民을 자 至善에 그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85	○ 右傳之二章 釋新民	右는 傳文의 二章이니, 新民을 해석하였다.
86	<03> 止於至善	제 03 장 지어지선 (止於至善). ◇文王과 武王의 德을 称頌하며, 君子는 그들의 聖德을 본받고자 切磋琢磨하여, 백성들에게 明明德의 효과로써 新民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87	03-01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畿內 천리여, 백성들이 멈추어 사는 곳이다.'
88	○ 詩商頌玄鳥之篇 邦畿王者之都也 止居也 言物各有所當止之處也	시는 商頌 玄鳥篇이다. 邦畿는 王者の 都邑이요, 止는 居함이니, 물건은 각기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89	03-02 詩云 緝蠻黃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시경에 이르기를 '緝蠻히 우는 黃鳥여, 丘隅에 멈춘다'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칠 때에 그 그칠 곳을 아니, 사람으로서 새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했다.
90	○ 詩小雅緝蠻之篇 緝蠻鳥聲 丘隅岑蔚之處 子曰以下孔子說詩之辭 言人當知所當止之處也	詩는 小雅 緝蠻篇이다. 緝蠻은 새 울음소리이다. 丘隅는 산이 깊고 숲이 울창한 곳이다. 子曰 이하는 공자께서 시경을 해석한 말씀이다. 사람은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을 알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91	03-03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시경에 이르기를 '穆穆하신 文王이여, 아! 계속하여 밝혀서 공경하여 그쳤다.' 하였으니,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치시고, 人臣이 되어서는 敬에 그치시고, 人子가 되어서는 孝에 그치시고, 人父가 되어서는 慈에 그치시고, 國人과 더불어 사귐에 信에 그치셨다.
92	○ 詩文王之篇 穆穆深遠之意 於歎美辭 緝繼續也 熙光明也 敬止言其無不敬而安所止也 引此而言聖人之止 無非至善 五者乃其目之大者也 學者於此究其精微之蘊 而又推類以盡其餘 則於天下之事 皆有以知其所止而無疑矣	시는 文王篇이다. 穆穆은 深遠한 뜻이다. 於(오)는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말이다. 緝은 계속함이고, 熙는 光明함이다. 敬止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치는 바에 편안함을 말한다. 이것을 인용하여 聖人の 그침은 至善 아님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 다섯 가지는 바로 그 條目的 큰 것이다. 배우는 자가 이에 대하여 그 精微의 깊음을 연구하고, 또 類推하여 그 나머지를 다한다면, 천하의 일에 대하여 모두 그 그칠 데를 알아 의심함이 없을 것이다.
93	03-04 詩云 瞻彼淇澳 莖竹猗猗 有斐君子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僩兮 赫兮喧兮 有斐君子 終不可諠兮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僩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 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시경에 이르기를 '저 淇水 모퉁이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문채나는 군자여, 잘라놓은 듯하고, 간 듯하며, 쪼아놓은 듯하고, 간듯하다.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점잖으니, 문채나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다' 하였으니, 如切如磋는 학문을 말한 것이요, 如琢如磨는 스스로 행실을 닦음이요, 瑟兮僩兮는 마음이 두려워함이요. 赫兮喧兮는 겉으로 드러나는 威儀요, 문채나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다는 것은 盛德과 至善을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94	<p>○ 詩衛風淇澳之篇 淇水名 澳隈也 猶猗美盛貌 興也 裴文貌切以刀鋸琢以椎鑿 皆裁物使成形質也 磋以鑪錫 磨以沙石 皆治物使其滑澤也 治骨角者既切而復磋之 治玉石者既琢而復磨之 皆言其治之有緒而益致其精也 瑟嚴密之貌 僕武毅之貌 赫喧宣著盛大之貌 誠忘也 道言也 學謂講習討論之事 自修者省察克治之功 恂慄戰懼也 威可畏也 儀可象也 引詩而釋之 以明明德者之止於至善 道學自修 言其所以得之之由 恂慄威儀 言其德容表裏之盛 卒乃指其實而歎美之也</p>	<p>시는 衛風 淩澳篇이다. 淩는 물 이름이요, 澳는 모퉁이이다. 猶猗는 아름답고 성한 모양이니, 興이다. 裴는 문채나는 모양이다. 切는 칼과 톱으로 써 하고, 琢은 망치와 끌로 써 하니, 모두 물건을 재단하여 형질을 이룩 하는 것이다. 磋는 줄과 대패로 써 하고, 磨는 모래와 돌로 써 하니, 모두 물건을 다스려서 매끄럽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빠와 뿔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잘라놓고 다시 이것을 갈며, 옥과 돌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쪼아놓고 다시 가니, 모두 그 다스림에 실마리가 있어 더욱 그 精함을 자극히 함을 말한 것이다. 瑟은 엄밀한 모양이요, 僕은 굳센 모양이다. 赫 · 喧은 드러나고 성대한 모양이다. 誠은 잊음이다. 道는 말함이다. 威는 두려울 만함이요, 儀는 본받을 만함이다. 시경을 인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明明德하는 자의 止於至善을 밝힌 것이다. 道學과 自修는 이것을 얻게 된 所以의 이유를 말한 것이요, 恂慄과 威儀는 德容의 表裏의 성함을 말한 것이니, 마침내 그 실체를 가리켜, 歎美한 것이다.</p>
95	<p>03-05 詩云 於戲前王不忘 君子賢其賢而親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p>	<p>시경에 이르기를 '아아! 前王을 잊지 못한다' 하였으니, 군자는 그(전왕) 어짊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이를 친히 여기며, 소인은 그 즐겁게 해 주심을 즐거워하고, 그 이롭게해 주심을 이롭게 여기니, 이 때문에 세상에 없어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p>
96	<p>○ 詩周頌烈文篇 於戲歎辭 前王謂文武也 君子謂其後賢後王 小人謂後民也 此言前王所以新民者 止於至善 能使天下後世 無一物不得其所 所以既沒世而人思慕之 愈久而不忘也 此兩節咏歎淫泆 其味深長 當熟玩之</p>	<p>시는 周頌 烈文篇이다. 於戲는 감탄하는 말이다. 전왕은 文王 · 武王을 이른다. 군자는 後賢과 後王을 이르고, 小人은 後民을 이른다. 이는 전왕이 백성을 새롭게 한 것이 지선에 그쳐서 능히 천하와 후세로 하여금 한 물건이라도 제 곳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하였다. 이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어 세상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思慕하여 더욱 오래도록 잊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 두 절은 咏嘆하고 淫泆하여 그 맛이 깊고 기니, 마땅히 익숙히 구경하여야 한다.</p>
97	<p>○ 右傳之三章 釋止於至善</p>	<p>右는 傳文의 3 章이니, 止於至善을 해석하였다.</p>
98	<p>○ 此章內 自引淇澳詩以下 舊本 誤在誠意章下</p>	<p>이 장 안에 淩澳詩를 인용함으로부터 이하는 舊本에 잘못되어 誠意章 아래에 있었다.</p>
99	<p><04>物有本末</p>	<p>제 04 장 물유본말 (物有本末). ◇治者는 明德과 新民으로써 반드시 訴訟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p>
100	<p>04-01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訟事를 다스림이 내 남과 같이 하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訟事함이 없게 하겠다.' 하셨으니, 實情이 없는 자가 그 거짓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p>
101	<p>○ 猶人不異於人也 情實也 引夫子之言 而言聖人 能使無實之人 不敢盡其虛誕之辭 蓋我之明德既明 自然有以畏服民之心志 故訟不待聽而自無也 觀於此言 可以知本末之先後矣</p>	<p>猶人은 남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情은 실제이다. 夫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인이 능히 실제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 虛誕한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이 이미 밝아져서 자연히 백성들의 心志를 두렵게 하고 복종시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사를 다스리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없어짐을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본다면 本末의先后를 알 수 있을 것이다.</p>
102	<p>○ 右傳之四章 釋本末</p>	<p>右는 傳文의 4 章이니 本末을 해석하였다.</p>
103	<p>○ 此章 舊本誤在止於信下</p>	<p>이 章은 舊本에 잘못되어 止於信 아래에 있었다.</p>
104	<p>04-02 (此謂知本)</p>	
105	<p>○ 程子曰 衍文也</p>	<p>程子가 말하기를 "衍文이다"</p>
106	<p><05>格物致知</p>	<p>제 05 장 격물치지 (格物致知). ◇朱子學의 두 中樞라고 할 수 있는 敬과 格物致知의 理致를 밝힌 내용이다.</p>

107	05-01 此謂知之至也	이것을 일러 지식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이다.
108	○ 此句之上別有闕文 此特其結語耳	이 문의 위에 별도로 빠진 글이 있고, 이것은 다만 그 결론한 말일 뿐이다.
109	○ 右傳之五章 蓋釋格物致知之義而今亡矣	右는 傳文의 5 章이니, 格物 · 致知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이게 없어졌다.
110	○ 此章 舊本通下章誤在經文之下	이 章은 舊本에 아랫 章을 통하여 잘못되어 經文의 아래에 있었다.
111	○ 間嘗竊取程子之意 以補之 曰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근간에 내 일찍이 程子의 뜻을 저으기 취하여 빠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였다. “이른바 지식을 비극히 함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인심의 영특함은 깊이 있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건마는, 다만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極에 이름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豁然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表裏와 精粗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物格이라 이르며, 이것을 知之至라 이른다.”
112	<06>誠意	제 06 장 성의 (誠意). ◇뜻을 성실하게 함이란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이다.
113	06-01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는 것 아니,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니, 이것을 自謙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
114	○ 誠其意者自修之首也 毋者禁止之辭 自欺云者知爲善以去惡 而心之所發 有未實也 謙快也 足也 獨者人所不知而己所獨知之地也 言欲自修者知爲善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禁止其自欺 使其惡惡則如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不可徒苟以徇外而爲人也 然 其實與不實 蓋有他人所不及知而己獨知之者 故 必謹之於此 以審其幾焉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自修의 첫 머리이다. 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自欺는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해야 함을 알되, 마음의 발하는 바가 성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謙은 快함이며, 만족함이다. 獨은 남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홀로 아는 바의 곳이다. 스스로 닦고자 하는 자는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해야 함을 알았으면, 마땅히 실제로 그 힘을 써서 自欺함을 금지하여, 가령 악을 미워함에는 惡臭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고, 선을 좋아함에는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 모두 힘써 결단하여 버리고, 구하여 반드시 얻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하게 할 것이요, 한갓 구차히 외면을 따라 남을 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실하고 성실하지 못함은 남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홀로 아는데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홀로)을 삼가 그 幾微를 살펴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115	06-02 小人閒居 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 厥然捨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 然則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 君子必慎其獨也	소인이 한가로이 거할 때에 불선한 짓을 하되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를 본 뒤에 겸연쩍게 그 불선함을 가리우고 선함을 드러내나니, 남들이 자기를 보기를 자신의 肺腑을 보듯이 할 것이니, 그렇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것을 일러, ‘중심에 성실하면 외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
116	○ 閑居獨處也 厥然消沮閉藏之貌 此言小人陰爲不善 而陽欲捨之 則是非不知善之當爲 與惡之當去也 但不能實用其力以至此耳 然欲捨其惡而卒不可捨 欲詐爲善而卒不可詐 則亦何益之有哉	閑居는 홀로 거처하는 것이다. 厥然은 消沮하여 은폐하고 감추는 모양이다. 이는 소인이 속으로 불선을 하고 겉으로 이것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을 마땅히 해야 함과 악을 마땅히 제거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되, 다만 실제로 그 힘을 쓰지 못하여 이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 악을 가리우고자 하여도 끝내 가리우지 못하고, 거짓으로 선을 하고자 하여도 끝내 속일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는 군자가 거듭 경계하여 반드시 그 홀로

	此君子所以重以爲戒而必謹其獨也	있을 때를 삼가는 까닭을 말씀한 것이다.
117	06-03 曾子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曾子께서 말하기를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 무섭구나!'
118	○ 引此以明上文之意 言雖幽獨之中 而其善惡之不可揜 如此 可畏之甚也	이것을 인용하여 윗 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비록 幽獨의 가운데라도 그 선악의 가리를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두려울 만함이 심함을 말씀한 것이다.
119	06-04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富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德은 몸을 윤택하게 하니,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120	○ 胖安舒也 言富則能潤屋矣 德則能潤身矣 故心無愧怍 則廣大寬平 而體常舒泰 德之潤身者然也 蓋善之實於中而形於外者如此 故又言此以結之	胖子는 편안하고 펴짐이다. 부하면 능히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이 있으면 능히 몸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廣大하고 寬平하여 몸이 항상 펴지고 편안하니,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함이 그러한 것이다. 善이 中心에 誠實하여 外面에 나타남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또 이것을 말씀하여 맺은 것이다.
121	○ 右傳之六章 釋誠意	우는 전문의 6 장이니, 성의를 해석하였다.
122	○ 經曰 欲誠其意 先致其知 又曰知至而后意誠 蓋心體之明 有所未盡 則其所發 必有不能實用其力 而苟焉以自欺者 然或已明而不謹乎此 則其所明 又非已有 而無以爲進德之基 故此章之指 必承上章而通考之然後 有以見其用力之始終 其序不可亂而功不可闕如此云	經文에 이르기를 '그 뜻을 성실히 하자 한다면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식이 지극한 뒤에 뜻이 성실해진다' 하였으니, 心體의 밝음이 未盡한 바가 있으면 그 발하는 바가 반드시 실제로 그 힘을 쓰지 못하여 구차하게 스스로 속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 이미 밝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삼가지 않으면 그 밝힌 것이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니어서 덕에 나아가는 기초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장의 뜻은 반드시 윗 장을 이어서 통틀어 상고한 뒤에야 힘을 쓰는 시와 종을 볼 수 있으니, 그 순서를 어지럽힐 수 없고, 공부를 빠뜨릴 수 없음이 이와 같다.
123	<07>正心 修身	제 07 장 정심 수신 (正心 修身). ◇마음에 일게 되는 노여움과 두려움, 좋아함과 근심 등을 다스려 中正을 얻는 것을 正心이라 하고, 正心을 유지해야 修身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4	07-01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롭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忿懥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恐懼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好樂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憂患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
125	○ 程子曰 身有之身當作心	정자는 身有의 身은 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126	○ 忿懥怒也 蓋是四者 皆心之用而人所不能無者 然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	忿懥는 怒함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用이니,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이것을 두고 살피지 못하면, 욕심이 動하고 情이 치우쳐서, 그 用의 행하는 바가 혹 올바름을 잊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7	07-02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128	○ 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 是以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	마음이 보존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을 檢束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를 살펴서 경하여 마음을 곧게 하니, 그러한 뒤에야 이 마음이 항상 본존되어서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129	07-03 此謂修身 在正其心	이것을 일러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130	○ 右傳之七章 釋正心修身	우는 전문의 7 장이니, 正心 · 修身을 해석하였다.
131	○ 此亦承上章 以起下章 蓋意誠 則真無惡而實有善矣 所以能存是心以檢其身 然或但知誠意 而不能密察此心之存否 則又無以直內而修身也 自此以下竝以舊文爲正	이 또한 위 장을 이어서 아랫 장을 일으킨 것이다. 뜻이 성실해지면 참으로 악이 없고 진실로 선이 있을 것이니, 이 때문에 능히 마음을 보존하여 그 몸을 檢束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 다만 誠意만을 알고, 이 마음의 보존되고 보존되지 않음을 치밀히 살피지 못한다면, 또 안을 곧게 하여 몸을 닦을 수가 없다. 이로부터 이하는 모두 옛 글을 읊은 것으로 삼는다.
132	<08>修身 齊家	제 08 장 수신 제가 (修身 齊家). ◇마음의 偏僻됨을 막아 中正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할 때에 修身할 수 있으며, 수신이 된 연후에야 가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133	08-01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焉 之其所畏敬而辟焉 之其所哀矜而辟焉 之其所敖惰而辟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이른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이 몸을 닦음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親愛하는 바에 편벽되며, 천히 여기고 미워하는 바에 편벽되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바에 편벽되며,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바에 편벽되며, 거만하고 태만히 하는 바에 편벽된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의 나쁨을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천하에 적은 것이다.
134	○ 人謂衆人 之猶於也 辟猶偏也 五者在人 本有當然之則 然常人之情 惟其所向而不加察焉 則必陷於一偏 而身不修矣	인은 衆人을 이른다. 之는 於와 같고, 辟은 偏과 같다. 다섯 가지는 사람에 있어,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으나, 常人の 情은 오직 그 향하는 대로 하고 살핌을 가하지 않으니, 그러면 반드시 한쪽으로 빠져서 몸이 닦아지지 못할 것이다.
135	08-02 故 謬有之 曰 人莫知其者之惡 莫知其苗之碩	그러므로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며, 그 苗의 큐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6	○ 謬俗語也 溺愛者不明 貪得者無厭 是則偏之爲害而家之所以不齊也	謬은 속담이다. 사랑에 빠진 자는 밝지 못하고, 얻음을 탐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은 편벽됨이 害가 되어 집안이 가지런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137	08-03 此謂身不修 不可而齊其家	이것을 일러 '몸이 닦아지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38	○ 右傳之六章 釋修身齊家	우는 전문의 8 장이니 修身 · 齊家를 해석하였다
139	<09>齊家 治國	제 09 장 제가 치국 (齊家 治國). ◇修身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문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이다.
140	09-01 所謂治國 必先齊其家者 其家 不可教 而能教人者無之 故君子 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君子는 집을 나기지 않고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孝는 군주를 섬기는 것이요, 弟는 長官을 섬기는 것이요, 慈는 여러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다.
141	○ 身修則家可教矣 孝弟慈所以修身而教於家者也 然而國之所以事君事長使衆之道 不外乎此 此所以家齊於上而教成於下	몸이 닦아지면 집안을 가르칠 수 있다. 孝 · 弟 · 慈는 몸을 닦아 집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군주를 섬기고 장관을 섬기고 백성을 부리는 바의 道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는 집안이 위에서 가지런해짐에 가르침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42	09-02 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未有學養子而后 嫁者也	康誥에 이르기를 '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 하였으니, 마음에 진실로 구하면 비록 딱 맞지는 않으나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있지 않다.

143	○ 此引書而釋之 又明立教之本 不假強爲在識其端而推廣之耳	이는 書經을 인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또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억지로 힘을 빌리지 않고, 그 단서를 알아서 미루어 넓힘에 있을 뿐임을 밝힌 것이다.
144	09-03 一家仁 一國興仁 一家讓 一國興讓 一人貪戾 一國作亂 其幾如此 此謂一言債事 一人定國	한 집안이 仁하면 한 나라가 仁을 興起하고, 한 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가 사양함을 흥기하고, 한 사람이 탐하고 어그러지면 한 나라가 亂을 일으키니, 그 기틀이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면,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145	○ 一人謂君也 機發動所由也 債覆敗也 此言教成於國之效	一人은 君을 이른다. 機는 發動함이 말미암은 것이다. 債은 전복되고 패함이다. 이는 가르침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효험을 말씀한 것이다
146	09-04 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而民從之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 是故 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 無諸己而後非諸人 所藏乎身 不恕 而能喻諸人者未之有也	堯·舜이 천하를 仁으로써 거느리시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桀·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자 백성들이 따랐으니, 그 명령하는 바가 자기(군주)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이므로 군자는 자기 몸에 선이 있는 뒤에 남에게 선을 요구하며, 자기 몸에 악이 있는 뒤에 남의 악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恕하지 못하고서 능히 남을 깨우치는 자는 있지 않다.
147	○ 此又承上文一人定國而言 有善於己然後 可以責人之善 無惡於己然後 可以正人之惡 皆推己而及人 所謂恕也 不如是則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矣 喻曉也	이는 또 윗 글에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한 것이다. 자기 몸에 善이 있는 뒤에 남의 선을 責할 수 있고, 자기 몸에 惡이 있는 뒤에 남의 악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니, 이른바恕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명령하는 바가 자기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가 되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喻는 깨달음이다.
148	09-05 故治國 在齊其家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는 것이다
149	○ 通結上文	윗 글을 통하여 맺은 것이다.
150	09-06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而后 可以教國人	詩經에 이르기를 '복숭아꽃이 예쁘고 예쁨이여, 그 잎이 무성하구나! 이 아기씨의 시집감이여,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和合)하다' 하였으니,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한 뒤에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151	○ 詩周南桃夭之篇 夭夭少好貌 蓪蕕美盛貌 興也 之子猶言是子 此指女子之嫁者而言也 婦人謂嫁曰歸 宜猶善也	시는 周南 桃夭篇이다. 夭夭는 어리고 예쁜 모양이요, 蓮蕕은 아름답고 성한 모양이니, 興이다. 之子는 是子라는 말과 같으니, 이는 여자의 시집가는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歸라 한다. 宜는 善(좋음)과 같다.
152	09-07 詩云 宜兄宜弟 宜兄宜弟而后 可以教國人	시경에 이르기를 '형에게도 마땅하고, 아우에게도 마땅하다' 하였으니, 형에게 마땅하고 아우에게 마땅한 뒤에야 나라 사람을 가즈칠 수 있는 것이다.
153	○ 詩小雅 莫蕭篇	시는 小雅 莫蕭篇이다.
154	09-08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 其爲父子兄弟足法而后 民法之也	시경에 이르기를 '그 威儀가 어그러지지 않는지라, 이 사방 나라를 바룬다' 하였으니, 그 부자와 형제 된 자가 족히 본받을 만한 뒤에야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다
155	○ 詩曹風鳴鳩篇 武差也	시는 曹風 鳴鳩篇이다. 武은 어그러짐이다.
156	09-09 此謂之國 在齊其家	이것을 일러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이다.
157	○ 此三引詩 皆以詠歎上文之事 而又結之如此 其味深長 最宜潛玩	이 세 번 인용한 시는 모두 윗 글의 일을 詠歎하였고, 또 맷기를 이와 같이 하여 그 맛이 깊고 기니, 가장 마땅히 마음을 잠겨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8	○ 右傳之九章 釋齊家治國	우는 전문의 9 장이니, 齊家·治國을 해석하였다.

159	<10>治國 平天下	제 10 장 치국 평천하 (治國 平天下). ◇1 절부터 23 절까지가 모두 治國과 平天下를 위해 윗자리에 있는 군자가 지녀야할 姿勢를 教示한 내용이다.
160	10-01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上老老而 民興孝 上長長而 民興弟 上恤孤而 民不倍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	이른바 천하를 平히 함이 그 나라로 다스림에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늙은이로 늙은이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孝를 興起하며, 위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弟를 興起하며, 윗사람이 孤兒를 구휼함에 백성들이 저버리지 않는다. 이므로 군자는 矩를 재는 道가 있는 것이다
161	○ 老老所謂老吾老也 興謂有所感發而興起也 孤者幼而無父之稱 紧度也 矩所以爲方也 言此三者 上行下效 捷於影響 所謂家齊而國治也 亦可以見人心之所同 而不可使有一夫之不獲矣 是以君子必當因其所同 推以度物 使彼我之間 各得分願 則上下四旁 均齊方正 而天下平矣	老老는 (孟子에) 이른바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긴다'는 것이다. 興은 感發한 바가 있어 興起함을 이른다. 孤는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자의 칭호이다. 紧은 헤아림이다. 矩는 네모진 것을 만드는 기구이다. 이 세 가지는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도 빠르니, 이른바 집안이 가지런해짐에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니, 또한 사람 마음이 똑같아서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서는 안됨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자가 반드시 마땅히 그 같은 바를 인하여 미루어 남을 헤아려서 彼我的 사이로 하여금 각기 分數와 소원을 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上下와 四方이 고르고 方正하여 천하가 平해질 것이다.
162	10-02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어던 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서 싫어던 것으로써 뒷사람에게 加하지 말며, 뒷사람에게 서 싫었던 것으로써 앞사람에게 따르지 말며, 오른쪽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왼쪽에게 사귀지 말며, 왼쪽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오른쪽에게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일러 矩로 재는 道라고 하는 것이다.
163	○ 此覆解上文絜矩二字之意 如不欲上之無禮於我 則必以此度下之心 而亦不敢以此無禮使之 不欲下之不忠於我 則必以此度上之心 而亦不敢以此不忠事之 至於前後左右 無不皆然 則身之所處上下四旁 長短廣狹 彼此如一 而無不方矣 彼同有是心而興起焉者又豈有一夫之不獲哉 所操者約 而所及者廣 此平天下之要道也 故章內之意 皆自此而推之	이는 윗 글의 紧矩 두 글자의 뜻을 반복하여 해석한 것이다. 내가 만일 윗사람이 나에게 無禮함을 원하지 않거든, 반드시 이로써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 역시 감히 이 無禮함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이 나에게 不忠함을 원하지 않거든, 반드시 이로써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 역시 이 不忠함으로서 윗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하니, 前 · 後, 左 · 右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다면 몸이 처한 바의 上下와 四方에 길고 좁음이 彼此가 똑같아서 방정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저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興起하는 자가 또 어찌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겠는가. 잡고 있는 바가 요약하면서도 미치는 바가 넓으니, 이는 天下를 平하는 要道이다. 그러므로 章 안의 뜻이 모두 이로부터 미루어갔다.
164	10-03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시경에 이르기를 '즐거우신 君子여, 백성의 父母이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함, 이를 일러 백성들의 父母라 하는 것이다.
165	○ 詩小雅南山有臺之篇 只語助辭 言能絜矩而以民心爲己心 則是愛民如子 而民愛之如父母矣	시는 小雅 南山有臺篇이다. 只는 어조사이다. 능히 紧矩하여 백성의 마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면, 이는 백성의 사랑하기를 자시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백성들이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할 것이다.
166	10-04 詩云 篩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 有國者 不可以不慎 辟則爲天下僇矣	시경에 이르기를 '깍아지른 저 南山이여, 돌이 巍巍하구나! 赫赫한 태사 尹氏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본다' 하였으니, 국가를 소유한 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되니, 편벽되면 천하의 죽임이 되는 것이다.

167	<p>○ 詩小雅節南山之篇 節截然高大貌 師尹周太師尹氏也 具俱也 辟偏也 言在上者 人所瞻仰 不可不謹 若不能絜矩而好惡徇於一己之偏 則身弑國亡 爲天下之大戮矣</p>	<p>시는 小雅 節南山篇이다. 節은 절연히 높고 큰 모양이다. 師尹은 周나라 太師인 尹氏이다. 具는 모두이고, 辟은 편벽됨이다. 윗자리에 있는 자는 사람들이 보고 우러르는 바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紧矩하지 못해서 좋아하고 미워함을 자기 한 몸의 편벽됨에 따르게 되면, 몸이弑害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여 천하의 큰 죽임이 됨을 말씀한 것이다</p>
168	<p>10-05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儀監于殷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 則失國</p>	<p>시경에 이르기를 '殷나라가 民衆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上帝에게 짹했었다. 그러하니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큰 命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씀한 것이다</p>
169	<p>○ 詩文王篇 師衆也 配對也 配上帝言其爲天下君而對乎上帝也 監視也 峻大也 不易言難保也 道言也 引詩而言此 以結上文兩節之意 有天下者能存此心而不失 則所以絜矩而與民同欲者 自不能已矣</p>	<p>시는 文王篇이다. 師는 民衆이다. 配는 대함이니, 配上帝은 천하의 군주가 되어上帝께 대함을 말한다. 監은 봄이요, 峻은 큼이다. 不易는 보존하기 어려움음을 말한다. 道는 말함이다. 시경을 인용하고 이것을 말하여 윗 글의 두 節의 뜻을 맺은 것이다. 천하를 소유한 자가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하고 잃지 않으면, 紧矩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하고자 함을 함께 하는 것이 자연히 그만들 수 없을 것이다.</p>
170	<p>10-06 是故 君子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p>	<p>이러므로君子는 먼저 德을 삼가는 것이니, 德이 있으면 이 人民이 있고, 人民이 있으면 이 土地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이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 쓰이 있는 것이다.</p>
171	<p>○ 先謹乎德 承上文不可不謹而言 德卽所謂明德 有人謂得衆 有土謂得國 有國則不患無財用矣</p>	<p>먼저 德을 삼간다는 것은 윗 글의 不可不謹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德은 곧 이른바 明德이란 것이다. 有人은 민중을 얻음을 이르고, 有土는 나라를 얻음을 이른다. 나라가 있으면 財用이 없음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p>
172	<p>10-07 德者本也 財者末也</p>	
173		<p>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末이니,</p>
174	<p>○ 本上文而言</p>	<p>윗 글을 근본하여 말한 것이다.</p>
175	<p>10-08 外本內末 爭民施奪</p>	<p>근본을 밖으로 하고 말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다투게 하여 劫奪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p>
176	<p>○ 人君以德爲外 以財爲內 則是爭鬭其民 而施之以劫奪之教也 蓋財者人之所同欲 不能絜矩而欲專之 則民亦起而爭奪矣</p>	<p>人君이 德을 밖으로 여기고 재물을 안으로 여긴다면, 이는 그 백성을 爭鬭하게 하여 劫奪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재물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자 하는 바이니, 紧矩하지 못하여 독차지하고자 한다면 백성들 또한 일어나 다투어 빼앗게 될 것이다.</p>
177	<p>10-09 是故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p>	<p>이러므로 재물이 모여지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p>
178	<p>○ 外本內末故財聚 爭民施奪故民散 反是則有德而有人矣</p>	<p>근본을 밖으로 하고, 말을 안으로 하기 때문에 재물이 모여지는 것이요, 백성을 다투게 하여 駕馳하는 가르침을 베풀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면 德이 있어서 인민이 있게 될 것이다</p>
179	<p>10-10 是故言悖而出者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而出</p>	<p>이러므로 말이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 것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오고,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나가는 것이다</p>
180	<p>○ 悖逆也 此以言之出入 明貨之出入也 自先謹乎德以下至此 又因財貨 以明能絜矩與不能者之得失也</p>	<p>悖는 어그러짐이다. 이것은 말의 나가고 들어옴을 가지고 재물의 나가고 들어옴을 밝힌 것이다. 先謹乎德 이하로부터 여기까지는 또한 貨貨를 인하여 능히 헐구한 자와 능히 헐구하지 못한 자의 得失을 밝힌 것이다.</p>
181	<p>10-11 康誥曰 惟命 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p>	<p>강고에 이르기를 '天命은 일정한 곳에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선하면 얻고, 선하지 못하면 잃음을 말한 것이다</p>
182	<p>○ 道言也 因上文引文王詩之意而申言之 其丁寧反覆之意 益深切矣</p>	<p>도는 말함이다. 윗 글에 文王詩를 인용한 뜻을 인하여 거듭 말하였으니, 그 丁寧하고 반복한 뜻이 더욱 깊고 간절하다</p>

183	10-12 楚書曰 楚國 無以爲寶 惟善 以爲寶	楚書에 이르기를 '楚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善人을 보배로 삼는다' 하였다.
184	○ 楚書楚語 言不寶金玉而寶善人也	楚書는 楚語이다. 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善人을 보배로 여김을 말한 것이다.
185	10-13 老犯曰亡人 無以爲寶 仁親 以爲寶	老犯이 말하기를 '도망은 사람은 보배로 여길 것이 없고, 어버이를 사랑함은 보배로 여긴다' 하였다
186	○ 老犯晉文公老狐偃 字子犯 亡人文公 時爲公子 出亡在外也 仁愛也 事見檀弓 此兩節 又明不外本而內末之意	老犯은 晉나라 文公의 외삼촌인 孤偃이니, 자가 子犯이다. 亡人은 文公이 당시 公子가 되어서 나가 망명하여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仁은 사랑함이니, 이 사실은 檀弓篇에 보인다. 이 두 節은 또 근본을 밖으로 하고 末을 안으로 하지 않는 뜻을 밝힌 것이다.
187	10-14 秦誓曰 若有一个臣 斷斷兮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人之彥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尚亦有利哉 人之有技媚疾以惡之 人之彥聖 而違之 俾不通 實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	秦誓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한 신하가 斷斷하고 다른 技藝가 없으나, 그 마음이 곱고 고와 용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하고 聖스러움을 그 마음에 좋아함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한다면, 이는 능히 남을 포용하는 것이어서, 능히 나의 子孫과 黎民을 보존할 것이니, 행여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技藝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훌륭하고 성스러움을 어겨서 하여금 통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은 능히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의 子孫과 黎民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또한 위태로울진저!'
188	○ 秦誓周書 斷斷誠一之貌 彥美士也 聖通明也 尚庶幾也媚忌也 違拂戾也 殆危也	秦誓는 周書이다. 斷斷은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모양이다. 彥은 아름다운 선비요, 聖은 通明함이다. 尚은 庶幾이다. 媚는 猜忌이다. 違는 어김이다. 殆는 위태로움이다.
189	10-15 唯仁人 放流之 進諸四夷 不與同中國 此謂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	오직 仁人이어야 이들을 추방하여 유배하되 사방 오랑캐의 땅으로 내쫓아, 더불어 중국에 함께 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오직 인인이어야 능히 남을 사랑하며, 능히 남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다.
190	○ 進猶逐也 言有此媚疾之人 妨賢而病國 則仁人必深惡而痛絕之 以其至公無私 故能得好惡之正 如此也	진은 逐과 같다. 이 媚嫉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진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면 仁인이 반드시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끊으니, 그 至公無私하기 때문에 능히 좋아하고 미워함이 올바름을 얻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191	10-16 見賢而不能舉 舉而不能先 命也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	어진이를 보고도 능히 들어쓰지 못하며, 들어쓰되 먼저하지 못함이 태만함이요, 불선한 자를 보고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며, 물리치되 멀리하지 못함이 과실이다.
192	○ 命 鄭氏云 當作慢 程子云 當作怠 未詳孰是 若此者 知所愛惡矣 而未能盡愛惡之道 蓋君子而未仁者也	命은 鄭氏(鄭玄)는 '마땅히 慢이 되어야 한다'하고, 程子는 '마땅히 怠가 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는 상세하지 않다. 이와 같은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바를 알되, 사랑하고 미워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君子이되 아직 仁하지 못한 자이다.
193	10-17 好人之所惡 惡人之所好 是謂拂人之性 畜必逮夫身	남의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며, 남의 좋아하는 바를 미워함, 이를 일러 사람의 성품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194	○ 拂逆也 好善而惡惡 人之性也 至於拂人之性 則不仁之甚者也 自秦誓至此 又皆以申言好惡公私之極 以明上文所引南山有臺 節南山之意	拂은 거스름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은 사람의 性이니, 사람의 性을 어김에 이르면 不仁이 심한 자이다. 秦誓로부터 여기까지는 또 모두 좋아하고 미워하기를 公으로 함과 私로 함의 지극함을 거듭 말하여, 윗 글에 인용한 南山有臺와 節南山의 뜻을 밝힌 것이다.
195	10-18 是故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이러므로 군자는 큰 도가 있으니, 반드시 忠과 信으로써 얻고, 교만함과 방자함으로써 잃는다

196	<p>○ 君子以位言之 道謂居其位 而修己治人之術 發己盡爲忠 循物無違謂信 驕者矜高 泰者侈肆 此因上所引文王康誥之意而言 章內三言得失 而語益加切 蓋至此而天理存亡之幾決矣</p>	<p>君子는 지위로써 말한 것이다. 도는 그 지위에 居하여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른다. 자기 마음을 발하여 스스로 다향을 忠이라 하고, 남을 따라 어김이 없음을 信이라 이른다. 驕는 자랑하고 높은 체함이요, 泰는 사치하고 방자함이다. 이는 위에 인용한 文王詩와 康誥의 뜻을 인하여 말씀한 것이다. 이 장 안에 득실을 세 번 말하였는데 말이 더욱 더 간절하다. 이에 이름에 天理가 보존되고 멸망하는 기틀이 결판나다.</p>
197	<p>10-19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p>	<p>재물을 생산함이 큰 도가 있으니, 생산하느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기를 빨리 하고 쓰기를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p>
198	<p>○ 呂氏曰 國無游民 則生者衆矣 朝無幸位 則食者寡矣 不奪農時 則爲之疾矣 量入爲出 則用之舒矣 愚按 此因有土有財而言 以明足國之道 在乎務本而節用 非必外本內末 而後財可聚也 自此以至終篇皆一意也</p>	<p>呂氏(呂大臨)가 말하였다. “나라에 노는 백성이 없으면 생산하는 자가 많은 것이요,朝廷에 여행의 지위가 없으면 먹는 자가 적은 것이요,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요, 수업을 해아려 지출을 하면 쓰기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상고해보건대, 이는 有土와 有財를 인하여 말씀해서, 나라를 풍족히 하는 道가 本業(農業)을 힘쓰고 쓰기를 절약함에 있는 것이요, 반드시 근본을 밖으로 하고 말을 안으로 한 뒤에 재물이 모이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이로부터 끝 편까지는 다 똑같은 뜻이다.</p>
199	<p>10-20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p>	<p>仁자는 재물로써 몸을 일으키고, 不仁한 자는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p>
200	<p>○ 發猶起也 仁者散財以得民 不仁者亡身以殖貨</p>	<p>發은 起와 같다. 仁자는 재물을 흘어서 백성을 얻고, 不仁한 자는 몸을 망쳐서 재물을 증식한다.</p>
201	<p>10-21 未有上好仁 而下不好義者也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未有府庫財 非其財者也</p>	<p>윗사람이 仁을 좋아하고서 아랫사람들이 義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있지 않으니, 아랫사람들이 의를 좋아하고서 그(윗사람) 일이 끝마쳐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며, 府庫의 재물이 그 윗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가 없는 것이다.</p>
202	<p>○ 上好仁以愛其下 則下好義以忠其上 所以事必有終 而府庫之財 無悖出之患也</p>	<p>윗사람이 仁을 좋아하여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아랫사람들이 義를 좋아하여 그 윗사람에게 충성하니, 이 때문에 일이 반드시 마침이 있고, 府庫의 재물이 어그러지게 나가는 폐단이 없는 것이다.</p>
203	<p>10-22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鷄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 斂之臣 寧有盜臣 此謂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p>	<p>孟獻子가 말하기를 ‘馬乘을 기르는 자는 달과 돼지를 기름에 살피지 않고, 얼음을 쓰는 집안을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百乘의 집안은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으니, 聚斂하는 신하를 기를진댄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 하였으니, 이것을 일러 ‘나라는 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義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p>
204	<p>○ 孟獻子 魯之賢大夫仲孫蔑 畜馬乘 士初試爲大夫者也 伐冰之家 卿大夫以上 喪祭用冰者也 百乘之家 有采地者也 君子寧亡己之財 而不忍傷民之力 故寧有盜臣而不畜聚斂之臣 此謂以下釋獻子之言也</p>	<p>孟獻子는 魯나라의 賢大夫인 仲孫蔑이다. 馬乘을 기른다는 것으로 士가 처음 등용되어 大夫가 된자이다. 伐冰之家는 卿大夫 이상으로 初喪과 祭祀에 얼음을 쓰는 자이다. 百乘之家는 采地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君子는 차라리 자기의 재물을 잃을지언정 차마 백성의 힘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둘지언정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 것이다. 此謂 이하는 獻子의 말을 해석한 것이다.</p>
205	<p>10-23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蕃害竝至 雖有善者 亦無 如之何矣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p>	<p>국가에 어른이 되어 財用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小人으로부터 시작되니, 저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게 하면 天災와 人害가 함께 이르러, 비록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나라는 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義를 이로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p>
206	<p>○ 彼爲善之 此句上下疑有闕文誤字</p>	<p>彼爲善之 이 句의 위아래에는 의심컨대 闕文이나 誤字가 있는 듯하다.</p>
207	<p>○ 自由也 言由小人導之也 此一節 深明以利爲利之害 而重言以結之 其丁寧之意切矣</p>	<p>자는 말미암음이니, 小인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음을 말한 것이다.</p>

208	10-24 右傳之十章 釋治國平天下	우는 전문의 10 장이니, 治國 · 平天下를 해석하였다.
209	○ 次章之義 務在與民同好惡 而不專其利 皆推廣絜矩之意也 能如是 則親賢樂利 各得其所 而天下平矣	이 장의 뜻은 힘씀이 백성들과 더불어 좋아하고 싫어함을 함께 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지 않음에 있으니, 모두 �絜矩의 뜻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능히 이와 같이 하면 親 · 賢과 樂 · 利가 각각 그 곳을 얻어서 천하가 평하게 될 것이다.
210	10-25 凡傳十章 前四章 統論綱領指趣 後六章 細論條目工夫 其第五章 乃明善之要 第六章 乃誠身之本 在初學 尤爲當務之急 讀者不可以其近而忽之也	무릇 傳文 열 장에 앞의 네 장은 綱領의 指趣를 통합하여 논하였고, 뒤의 여섯 장은 條目的 공부를 세세히 논하였다. 제 5 장은 바로 善을 밝히는 要體요, 제 6 장은 바로 몸을 성실히 하느 근본이니, 初學者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急先務가 되니, 읽는 자들은 淺近하다고 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211		
212	[古 本 大 學]	
213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此謂知本	
214	此謂知之至也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小人閒居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 厭然捨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 然則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 君子必慎其獨也 曾子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詩云 瞻彼淇澳 蓼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僕兮 赫兮喧兮 有斐君子 終不可諱兮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僕兮者 恂慄也 赫兮喧兮者 威儀也 有斐君子 終不可諱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詩云 於戲前王不忘 君子賢其賢而親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 康誥曰
克明德 太甲曰 顧諟天之明命 帝典曰 克明峻德
皆自明也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又日新
康誥曰 作新民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是故君子無所不用其極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詩云 緝蠻黃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與國人交止於信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修身在正其心

217	大學	大學
218	I. 經文	제 1 편 경문 (經文). ♣ 경문은 대학의 총론으로 주희가 본 편을 경문이라 하고 나머지 편을 전문이라 이름 지었으며,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했다고 함.
219	<01>三綱領	1.三綱領(삼강령).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220	<02>八條目	2.八條目(팔조목)(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221	II. 傳文	제 2 편 전문 (傳文). ♣ 전문은 경문에 대한 각론으로서 증자가 경문에 대한 해설을 쓴 것을 주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놓았음. 책 종류에 따라 각장에 장명(章名)을 붙인 것도 있고 없고 하여 읽기 좋게 하기 위해 장명을 붙여 놓았음.
222	<01>明明德	제 01 장 明明德 (明明德). ◇『書經』에서 인용한 말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덕을 밝혀 빛나게 하는 것에 귀착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223	<02>新民	제 02 장 新民 (新民). ◇盤銘에는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康誥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문왕의 시는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한 極致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극을 쓰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224	<03>止於至善	제 03 장 지어지선 (止於至善). ◇文王과 武王의 덕을 稱頌하며, 君子는 그들의 聖德을 본받고자 切磋琢磨하여, 백성들에게 明明德의 효과로써 新民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25	<04>物有本末	제 04 장 물유본말 (物有本末). ◇治者는 明德과 新民으로써 반드시 訴訟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226	<05>格物致知	제 05 장 격물치지 (格物致知). ◇朱子學의 두 中樞라고 할 수 있는 敬과 格物致知의 理致를 밝힌 내용이다.
227	<06>誠意	제 06 장 성의 (誠意). ◇뜻을 성실하게 함이란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란 말씀이다.
228	<07>正心 修身	제 07 장 정심 수신 (正心 修身). ◇마음에 일게 되는 노여움과 두려움, 좋아함과 근심 등을 다스려 中正을 얻는 것을 正心이라 하고, 正心을 유지해야 修身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29	<08>修身 齊家	제 08 장 수신 제가 (修身 齊家). ◇마음의 偏僻됨을 막아 中正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할 때에 修身할 수 있으며, 수신이 된 연후에야 가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230	<09>齊家 治國	제 09 장 제가 치국 (齊家 治國). ◇修身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문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다.
231	<10>治國 平天下	제 10 장 치국 평천하 (治國 平天下). ◇1 절부터 23 절까지가 모두 治國과 平天下를 위해 윗자리에 있는 군자가 지녀야 할 姿勢를 教示한 내용이다.

1	中庸章句序	中庸章句序
2	<p>中庸何爲而作 子思子 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 蓋自上古 聖神繼天立極而道統之傳 有自來矣 其見於經則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堯之一言 至矣盡矣 而舜復益之以三言者</p> <p>則所以明夫堯之一言 必如是而後 可庶幾也 蓋嘗論之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然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不能無人心</p>	
3	<p>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不能無道心 二者雜於方寸之間 而不知所以治之 則危者愈危 微者愈微 而天理之公 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 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p> <p>一則守其本心之正而不離也 從事於斯 無少間斷 必使道心 常爲一身之主 而人心 每聽命焉 則危者安 微者著 而動靜云爲 自無過不及之差矣 夫堯舜禹天下之大聖也 而天下相傳 天下之大事也 以天下之大聖 行天下之大事 而其授受之際 丁寧告戒 不過如此 則天下之理 岂有以加於此哉</p>	
4	<p>自是以來 聖聖相承 若成湯文武之爲君 臯陶伊傅周召之爲臣 既皆以此 而接夫道統之傳 若吾夫子 則雖不得其位 而所以繼往聖 開來學 其功 反有賢於堯舜者 然當是時</p> <p>見而知之者惟顏氏曾氏之傳 得其宗 及其曾氏之再傳 而復得夫子之孫子思 則去聖遠而異端起矣 子思懼夫愈久而愈失其真也 於是 推本堯舜以來相傳之意 質以平日所聞父師之言 更互演繹 作爲此書 以詔後之學者 蓋其憂之也深</p>	
5	<p>故其言之也切 其慮之也遠 故其說之也詳 其曰 天命率性 則道心之謂也 其曰 擇善固執 則精一之謂也 其曰 君子時中 則執中之謂也</p> <p>世之相後千有餘年 而其言之不異 如合符節 歷選前聖之書 所以提挈網維 開示蘊奧 未有若是其明且盡者也 自是而又再傳 以得孟氏 爲能推明是書 以承先聖之統 及其沒而遂失其傳焉</p>	

6 則吾道之所寄 不越乎言語文字之間 而異端之說 日新月盛 以至於老佛之徒出 則彌近理而大亂真矣 然而尙幸此書之不泯 故程夫子兄弟者出 得有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緒 得有所據 以斥夫二家似是之非 蓋子思之功 於是爲大 而微程夫子 則亦莫能因其語而得其心也 惜乎 其所以爲說者 不傳 而凡石氏之所輯錄 僅出於其門人之所記 是以 大義雖明 而微言未析 至其門人所自爲說 則雖頗詳盡而多所發明 然倍其師說而淫於老佛者亦有之矣	
7 熹自蚤歲 卽嘗受讀而竊疑之 沈潛反復 蓋亦有年 一旦恍然 似有以得其要領者 然後 乃敢會衆說而折其衷 既爲定著章句一篇 以俟後之君子 而一二同志 復取石氏書 刪其繁亂 名以輯略 且記所嘗論辨取舍之意 別爲或問 以附其後 然後 此書之旨 支分節解 脈絡貫通 詳略相因 巨細畢學 而凡諸說之同異得失 亦得以曲暢旁通 而各極其趣 雖於道統之傳 不敢妄議 然初學之士 或有取焉 則亦庶乎升高行遠之一助云爾	
8 淳熙己酉春三月戊申 新安朱熹書	
9 讀中庸法	讀中庸法
10 朱子曰 中庸一篇 某妄以己意 分其章句 是書豈可以章句求哉 然學者之於經 未有不得於辭而能通其意者 又曰 中庸初學者未當理會 ♥ 中庸之書難看 中間說鬼說神 都無理會 學者須是見得箇道理了 方可看此書將來印證 ♥ 讀書之書 須是且著力去看大學 又著力去看論語 又著力去看孟子 看得三書了 這中庸 半截都了 不用問人 只略略恁看過 不可掉了易底 却先去攻那難低 中庸多說無形影 說下學處少 說上達處多 若且理會文義 則可矣	
11 ♥ 讀書 先須看大綱 又看幾多間架 如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此是大綱 夫婦所知所能 與聖人不知不能處 此類是間架 譬人看屋 先看他大綱 次看幾多間 間內又有小間然後 方得貫通 ♥ 又曰 中庸自首章以下 多對說將來 直是整齊 某舊讀中庸 以爲子思做 又時復有箇子曰字 讀得熟後 方見得是子思參夫子之說 著爲此書 自是 沈潛反覆 遂漸得其旨趣 定得今章句擺布得來 直恁麼細密 ♥ 近看中庸 於章句文義間 窺見聖賢述作傳授之意 極有條理 如繩貫棋局之不可亂	

12	<p>♥ 中庸當作六大節看 首章 是一節 說中和 自君子中庸以下十章 是一節 說中庸君子之道 費而隱以下八章 是一節 說費隱 哀公問政以下七章 是一節 說誠 大哉聖人之道以下六章 是一節 說大德小德 末章 是一節 復申首章之義 問中庸大學之別 曰如讀中庸求義理 只是致知功夫 如謹獨修省 亦只是省意 問只是中庸 直說到聖而不可知處 曰如大學裡也 有如前王不忘 便是篤恭而天下平低事</p>	
13	子思 中庸	中庸 禮記 제 31 편
14	中庸朱熹章句	中庸朱熹章句
15	中者 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常庸也	
16	<p>子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天下之正道 常庸者天下之定理 此篇乃孔門傳授心法子思恐其久而差也 故筆之於書以授孟子 其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複合爲一理 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其味無窮 皆實學也 善讀者 玩索而有得焉 則終身用之 有不能盡者矣</p>	
17	<01>	<제 01 장.> - 朱子에 의하면 이 제 1 장은 子思가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전해 받은 그대로를 충실히 祖述해서 포괄적인 주제로 한 것이다.
18	01-01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일러 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러 教라 하니라.
19	<p>命猶令也 性卽理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人物之生 因各得 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率循也 道猶路也 人物各循其性之自然 則其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 脩品節之也 性道雖同 而氣稟或異 故不能無過不及之差 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 而品節之 以爲法於天下 則謂之教 若禮樂刑政之屬是也 蓋人知己之有性 而不知其出於天 知事之有道 而不知其由於性 知聖人之有教 而不知其因吾知之所固有者裁之也 故子思於此首發明之 而董子所謂道之大原 出於天 亦此意也</p>	
20	01-02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나지 못할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道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하느니라.

21	<p>道者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 是以君子之心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所以存天理之本然 而不使離於須臾之頃也</p>	
22	01-03 莫見乎隱 幕顯乎微 故君子 慎其獨也	숨은 것보다 더 보이는 것이 없으며, 은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고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 하느니라.
23	<p>隱暗處也 微細事也 獨自人所不知而己所獨知之地也 言幽暗之中 細微之事 跡雖未形 而幾則已動 人雖不知 而己獨知之 則是天下之事 無有著見明顯而過於此者 是以 君子既常戒懼 而於此尤加謹焉 所以過人欲於將萌 而不使其潛滋暗長於隱微之中 以至離道之遠也</p>	
24	<p>01-04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p>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나타나서 다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이르니, 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和라는 것은 천하의 통달한 道이니라.
25	<p>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 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由 道之用也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p>	
26	01-05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과 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育成될 것이다.
27	<p>致推而極之也 位者安其所也 育者 遂其生也 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無所偏倚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 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無少差謬而無適不然 則極其和而萬物育矣 蓋天地萬物本吾一體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故其效驗 至於如此 此學問之極功 聖人之能事 初非有待於外 而修道之教亦在其中矣 是其一體一用 雖有動靜之殊 然 必其體立而後用有以行 則其實亦非有兩事也 故於此 合而言之 以結上文之意 ♥ 右第一章 子思述所傳之意以立言 首明道之本原出於天而不可易 其實體備於己而不可離 次言存養省察之要 終言聖神功化之極 蓋欲學者於此 反求諸身而自得之 以去夫外誘之私而充其本然之善 楊氏所謂一篇之體要是也 其下十章 蓋子思引夫子之言 以終此章之義</p>	
28	<02>	<제 02 장.> - 이 章부터 제 11 장까지의 10 장은 모두 <中庸>이란 것을 주제로 하여 제 1 장의 사상을敷衍해서 解釋한다.

29	02-01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중니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용을 지키지만,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30	中庸者 不偏不倚無過不及而平常之理 乃天命所當然精微之極致也 唯君子爲能體之 小人反是	
31	02-02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이 중용에 반하는 것은 소인으로서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라.
32	王肅本作小人之反中庸也 程子亦以爲然 今從之 ♥ 君子之所以爲中庸者 以其有君子之德 而又能隨時以處中也 小人之所以反中庸者 以其有小人之心 而又無所忌憚也 蓋中無定體 隨時而在 是乃平常之理也 君子知其在我 故能戒謹不睹 恐懼不聞 而無時不中 小人不知有此 則肆欲妄行而無所忌憚矣 ♥ 右第二章 此下十章皆論中庸 以釋首章之義 文雖不屬 而意實相承也 變和言庸者 游氏曰 以性情言之 則曰中和 以德行言之 則曰中庸 是也 然 中庸之中實兼中和之義	
33	<03>	<제 03 장.> - 이 대목은 『論語』「雍也篇」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으나, 『論語』에는 '能'자가 없다.
34	03-01 子曰 中庸 其至矣乎 民鮮能 久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그 지극한 것이로다. 백성이 능히 함이 적은 지 오래이니라.」
35	過則失中 不及則未至 故惟中庸之德 爲至 然亦人所同得 初無難事 但世教衰 民不興行 故鮮能之今已久矣 論語無能字 ♥ 右第三章	
36	<04>	<제 04 장.> - 이 장은 앞 장의 '백성이 능히 함이 적은 지 오래이다.'를 받아 공자의 다른 말씀을 들고 있는 내용이다.
37	04-01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니라. 道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노라. 현량한 사람은 지나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니라.」
38	道者天理之當然 中而已矣 知愚賢不肖之過不及 則生稟之異而失其中也 知者知之過 既以道爲不足行 愚者不及知 又不知所以行 此道之所以常不行也 賢者行之過 既以道爲不足知 不肖者不及行 又不求所以知 此道之所以常不明也	
39	04-02 人莫不飲食也 鮮能知味也	사람으로서 마시고 먹지 않은 이가 없지마는 능히 맛을 아는 이는 드물다.
40	道不可離人自不察 是以有過不及之弊 ♥ 右第四章	
41	<05>	<제 05 장.> - 이 장은 앞 장을 이어받아 '道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를 실마리로 다음 장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한다.

42	05-01 子曰 道其不行矣夫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도는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로다.」
43	由不明故 不行 ♥ 右第五章 此章承上章而舉其不行之端 以起下章之意	
44	<06>	<제 06 장.> - 이 장에서는 유교적인 思考 방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45	06-01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셨고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셨으며, 나쁜 것은 숨기시고 좋은 것은 드러내시어, 그 두 끝을 잡아 그 중을 백성에게 쓰셨으니, 그것이 바로 순임금이 되신 까닭이다.」
46	舜之所以爲大知者 以其不自用而取諸人也 邇言者 淺近之言 猶必察焉 其無遺善可知 然於其言之未善者 則隱而不宣 其善者則播而不匿 其廣大光明 又如此 則人孰不樂告以善哉 兩端謂衆論不同之極致 蓋凡物 皆有兩端 如小大厚薄之類 於善之中又執其兩端而量度以取中然後用之 則其擇之審而行之至矣 然非在我之權度精切不差 何以與此 此知之所以無過不及而道之所以行也 ♥ 右第六章	
47	<07>	<제 07 장.> - 이 장은 앞 장의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의 '大知'를 받고 있는 내용이다. 동시에 또 '밝지 못하다(不明)'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음 장으로 이행하는 실마리로 삼고 있다.
48	07-01 子曰 人皆曰予知 驅而納諸罟獲陷阱之中而莫之知 也人皆曰予知 擇乎中庸而不 能期月守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사람들이 다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물이나 덫 혹은 함정 속에 몰아넣어도 그것을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이 모두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을 택하여 능히 한 달도 지켜내지 못하느니라.」
49	罟網也 獲機檻也 陷阱坑坎也 皆所以掩取禽獸者也 擇乎中庸 辨別衆理 以求所謂中庸 卽上章好問用中之事也 期月匝一月也 言知禍而不知避 以況能擇而不能守 皆不得爲知也 ♥ 右第七章 承上章大知而言 又舉不明之端 以起下章也	
50	<08>	<제 08 장.> - 이 장은 颜回의 중용의 실천을 말하면서, 중용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51	08-01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回의 사람됨은 중용을 택하여 한 가지 善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꼭 지니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느니라.」
52	回孔子弟子顏淵名 拳拳奉持之貌 服猶著也 膚胸也 奉持而著之心胸之間 言能守也 顏子蓋真知之 故能擇能守 如此 此 行之所以無過不及而道之所以明也 ♥ 右第八章	

53	<09>	<제 09 장.> - 이 장은 중용이 '平常의 道理'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의 認識과 實踐은 實相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54	09-01 子曰 天下國家 可均也 爵祿 可辭也 白刃 可蹈也 中庸 不可能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와 국가도 고르게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도 밟을 수 있으나, 중용은 능히 할 수 없느니라.」
55	均平治也 三者亦知仁勇之事 天下之至難也 然皆倚於一偏 故 資之近而力能勉者 皆足以能之 至於中庸 雖若易能 然非義精仁熟而無一毫人欲之私者 不能及也 三者難而易 中庸易而難 此民之所以鮮能也 ♥ 右第九章 亦承上章以起下章	
56	<10>	<제 10 장.> - 앞 장에서는 중용을 택하여 지켜나가는 일이 극도로 困難함을 말하고, 그 극도로 곤란한 것을 극복하고 중용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强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示唆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强의 여러 가지 狀態와 참된 强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57	10-01 子路 問強	자로가 强에 대하여 물으니,
58	子路孔子弟子仲由也 子路好勇 故問強	
59	10-02 子曰 南方之強與 北方之強與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
60	抑語辭 而汝也	
61	10-03 寬柔以教 不報無道 南方之強也 君子居之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으로써 가르치고, 無道한 것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그렇게 사느니라.
62	寬柔以教 謂含容巽順 以誨人之不及也 不報無道 謂橫逆之來 直受之而不報也 南方 風氣柔弱 故以含忍之力勝人爲強 君子之道也	
63	10-04 衮金革 死而不厭 北方之強也 而強者居之	창과 검과 갑옷을 깔고 누워서 죽어도 싫어하지 아니함은 북방의 강함이니, 강한 자가 그렇게 사느니라.
64	衽席也 金戈兵之屬 革甲冑之屬 北方風氣剛勁 故以果敢之力勝人爲強 強者之事也	
65	10-05 故君子 和而不流 強哉矯 中立而不倚 強哉矯 國有道 不變塞焉 強哉矯 國無道 至死不變 強哉矯	그러므로 군자는 和하되 柔弱(유약)한 데로 흐르지 않나니, 강하도다. 그 끗끗함이여! 中에 서서 기울지 아니하나니, 강하도다. 그 끗끗함이여! 나라에 道가 있으면 奢塞(군색)했을 때의 志操(지조)를 변치 않나니, 강하도다. 그 끗끗함이여! 나라에 道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節操(절조)를 변치 않나니, 강하도다. 그 끗끗함이여!

66	<p>此四者汝之所當強也 嬌強貌 詩曰嬌嬌虎臣 是也 倚偏著也 塞未達也 國有道 不變未達之所守 國無道 不變平生之所守也 次則所謂中庸之不可能者 非有以自勝其人欲之私 不能擇而守也 君子之強 孰大於是 夫子以是告子路者 所以抑其血氣之剛而進之以德義之勇也 ♥ 右第十章</p>	
67	<p><11></p>	<p><제 11 장.> - 子思가 孔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 1 장의 설명을 해온 것은 여기에서 그쳤다. 대체로 이 편의 큰 뜻은 知·仁·勇의 세 達德으로 道에 들어가는 문을 삼은 고로, 篇머리에 舜임금과 顏回와 子路의 일을 밝혔으며, 순임금은 知요, 안회는 仁이고, 자로는 勇이니, 삼자에서 그 하나를 폐하면 道에 나아가는 것과 德을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 나머지는 <제 20 장.>에서 볼 수 있다.</p>
68	11-01 子曰 素隱行怪 後世 有述焉 吾弗爲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것을 찾고 괴이한 행동을 하면 후세에 그것을 말하는 일이 있겠으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69	<p>素按漢書當作索 蓋字之誤也 素隱行怪言深求隱僻之理而過爲詭異之行也 然以其足以欺世而盜名 故後世或有稱述之者 此知之過而不擇乎善 行之過而不用其中 不當強而強者也 聖人豈爲之哉</p>	
70	11-02 君子 遵道而行 半途而廢 吾弗能已矣	군자가 道를 따라 행하다가 中途(중도)에서 그만두고 마는데, 나는 능히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71	<p>遵道而行則能擇乎善矣 半塗而廢則力之不足也 此其知雖足以及之而行有不逮 當強而不強者也 已止也 聖人於此 非勉焉而不敢廢 蓋至誠無息 自有所不能止也</p>	
72	11-03 君子 依乎中庸 遷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 能之	군자는 중庸에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숨어있어 알려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나니, 오직 성자만이 능히 할 수 있느니라.
73	<p>不爲索隱行怪 則依乎中庸而已 不能半塗而廢 是以遷世不見知而不悔也 此中庸之成德 知之盡 仁之至 不賴勇而裕如者 正吾夫子之事 而猶不自居也 故曰唯聖者能之而已 ♥ 右第十一章 子思所引夫子之言以明首章之義者 止此 蓋此篇大旨以知仁勇三達德 為入道之門 故於篇首 卽以大舜顏淵子路之事 明之 舜知也 顏淵仁也 子路勇也 三者 廢其一 則無以造道而成德矣 餘見第二十章</p>	
74	<p><12></p>	<p><제 12 장.> - 이 장은 子思 자신의 말로서 첫 장의 '道는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해명한 내용이다.</p>
75	12-01 君子之道 費而隱	군자의 道는 쓰임이 넓고 體(체)는 隱微(은미)하니라.

76	費用之廣也 隱體之微也	
77	12-02 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亦有所不知焉 夫婦之不肖 可以能行焉 及其之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焉 天地之大也 人猶有所憾 故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극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있고, 부부의 착하지 못함으로도 능히 행할 수 있으나, 그 지극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능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하늘과 땅의 큰 것으로도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하면 천하가 능히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고, 작은 것을 말하면 천하가 능히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라.
78	君子之道 近自夫婦居室之間 遠而至於聖人天地之所不能盡 其大無外 其小無內 可謂費矣 然其理之所以然 則隱而莫之見也 蓋可知可能者 道中之一事 及其至而聖人不知不能 則舉全體而言 聖人固有所不能盡也 侯氏曰 聖人所不知 如孔子問禮問官之類 所不能 如孔子不得位 堯舜病博施之類 愚謂 人所憾於天地 如覆載生成之偏 及寒暑災祥之不得其正者	
79	12-03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詩經』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하였으니, 이것은 道가 위아래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 것이라.
80	詩大雅寒麓之篇 鳶鷗類 戾至也 察著也 子思引此詩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 故程子曰 此一節 子思喫緊爲人處 活潑潑地 讀者其致思焉	
81	12-04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군자의 道는 부부에서 발단이 되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늘과 땅에서 드러나게 되느니라.
82	結上文 ♥ 右第二十章 子思之言 蓋以申明首章道不可離之意也 其下八章雜引孔子之言以明之	
83	<13>	<제 13 장.> - '道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앞장의 이른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능히 하는 것'이고, '내가 능히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즉, '성인도 능치 못하는 것'이다.
84	13-01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가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니, 사람이 道를 행하되 사람에게서 멀리한다면 道가 될 수 없는 것이라.」
85	道者率性而已 固衆人之所能知能行者也 故常不遠於人 若爲道者厭其卑近 以爲不足爲 而反務爲高遠難行之事 則非所以爲道矣	
86	13-02 詩云 伐柯伐柯 其則不遠 緝柯以伐柯 睨而視之 猶以爲遠 故君子 以人治人 改而止	『詩經』에 이르기를, 「도끼자루를 베는 것이여, 도끼자루를 베는 것이여! 그 법은 멀지 않다.」고 했으니, 도끼자루를 잡고서 도끼자루를 베어내면서도 훌겨보면서 오히려 멀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으로써 사람을 다스리다가 고쳐지면 그만두느니라.

87	<p>詩幽風伐柯之篇 柯斧柄 則法也 睨邪視也 言人執柯伐木以爲柯者 彼柯長短之法 在此柯耳 然猶有彼此之別 故伐者視之猶以爲遠也 若以人治人 則所以爲人之道各在當人之身 初無彼此之別 故君子之治人也 卽以其人之道 還治其人之身 其人能改 卽止不治 蓋責之以其所能知能行 非欲其遠人以爲道也 長子所謂以衆人望人則易從 是也</p>	
88	<p>13-03 忠恕 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p>	<p>충과 서는 道에서 어긋남이 멀지 않으니,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야 하느니라.</p>
89	<p>盡己之心爲忠 推己及人爲恕 違去也 如春秋傳齊師違穀七里之違 言自此至彼 相去不遠 非背而去之之謂也 道卽其不遠人者是也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忠恕之事也 以己之心 度人之心 未嘗不同 則道之不遠於人者 可見 故己之所不欲 則勿以施於人 亦不遠人以爲道之事 長子所謂以愛己之心愛人則盡仁 是也</p>	
90	<p>13-04 君子之道四 丘未能一焉 所求乎子 以事父 未能也 所求乎臣 以事君 未能也 所求乎弟 以事兄 未能也 所求乎朋友 先施之 未能也 常德之行 常言之謹 有所不足 不敢不勉 有餘 不敢盡 言顧行 行顧言 君子 胡不慥慥爾</p>	<p>군자의 道가 네 가지인데, 丘(공자)는 능히 한 가지도 하지 못하였으니, 자식에게 바라는 바로써 아버지를 섬김에 능히 하지 못하였고, 신하에게 바라는 바로써 임금을 섬김에 능히 하지 못하였으며, 아우에게 바라는 바로써 형을 섬김에 능히 하지 못하였고, 벗에게 바라는 바로써 먼저 베푸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였느니라. 뜻뜻한 德을 행하며 뜻뜻한 말을 삼가 하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고, 남음이 있거든 감히 다하지 아니하여,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니, 군자가 어찌 부지런히 행하지 않겠는가?</p>
91	<p>求猶責也 道不遠人 凡己之所以責人者 皆道之所當然也 故反之以自責而自修焉 常平常也 行者踐其實 謹者擇其可 德不足而勉 則行益力 言有餘而訥 則謹益至 謹之至則言顧行矣 行之力則行顧言矣 懃惄篤實貌 言君子之言行如此 豈不慥慥乎 讚美之也 凡此皆不遠人以爲道之事 長子所謂以責人之心責己則盡道 是也 ♥ 右第十三章 道不遠人者 夫婦所能 丘未能一者 聖人所不能 皆費也而其所以然者 則至隱存焉 下章放此</p>	
92	<p><14></p>	<p><제 14 장.> - 子思의 말이기 때문에 章의 말머리에 '子曰,~' 이 없는 것이다.</p>
93	<p>14-01 君子 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p>	<p>군자는 자기의 현재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느니라.</p>
94	<p>素猶見在也 言君子但因見在所居之位 而爲其所當爲 無慕乎其外之心也</p>	
95	<p>14-02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 無入而 不自得焉</p>	<p>부귀에 처하여서는 부귀를 행하고, 빈천에 처하여서는 빈천을 행하며, 이적(오랑캐)에 처하여서는 이적에 맞게 행하고, 환난에 처하여서는 환난에 맞게 행하느니, 군자는 들어가서</p>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96	此言素其位而行也	
97	14-03 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 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여 남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곧 원망이 없으리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느니라.
98	此言不願乎其外也	
99	14-04 故君子 居易以俟命 小人 行險以徼幸	그러므로 군자는 平易(평이)한 데 있으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하여 僥倖(요행)을 바란다.
100	易平地也 居易素位而行也 俟命不願乎外也 徵求也 幸謂所不當得而得者	
101	14-05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는 군자(의 道)와 비슷함이 있으니, 그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아켜 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느니라.」
102	畫布曰正 檟皮曰鵠 皆侯之中 射之的也 子思引此孔子之言 以結上文之意 ♥ 右第十四章 子思之言也 凡章首 無子曰字者 放此	
103	<15>	<제 15 장.> - 이 장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중용의 道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104	15-01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군자의 道는 비유컨대, 만약 먼 곳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비유컨대, 만약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라.
105	辟 譬同	
106	15-02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既翕 和樂且耽 宜爾室家 樂爾妻帑	『詩經』에 이르기를, 「처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가 이미 화목하여 즐겁고 기쁘니, 너의 집과 가문을 좋게 하고, 너의 처와 자손을 즐겁게 하리라.」고 했다.
107	詩小雅常棣之篇 鼓瑟琴和也 翁亦合也 耽亦樂也 帑子孫也	
108	15-03 子曰 父母 其順矣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安樂(안락)하실 것이로다.」
109	夫子誦此詩而讚之曰 人能和於妻子 宜於兄弟如此 則父母其安樂之矣 子思引詩及此語 以明行遠自邇 登高自卑之意 ♥ 右第十五章	
110	<16>	<제 16 장.> - 이 장은 첫 장과 아울러 특히 유명한 장이며, 앞의 세 장은 그 넓은 것의 작은 것을 말한 것이고, 뒤의 세 장은 그 넓은 것의 큰 것을 말한 것이다.
111	16-01 子曰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德됨은 盛하기도 하구나!」

112	程子曰 鬼神天地之功用 而造化之迹也 張子曰 鬼神者 二氣之良能也 愚謂以二氣言 則鬼者陰之靈也 神者陽之靈也 以一氣言 則至而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其實一物而已 爲德猶言性情功效	
113	16-02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	이를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나, 만물의 몸(本體)이 되어 있으므로 버릴 수가 없느니라.
114	鬼神無形與聲 然物之終始 莫非陰陽合散之所爲 是其爲物之體而物之所不能遺也 其言體物 猶易所謂幹事	
115	16-03 使天下之人 齋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齋戒(재계)하고 盛服(성복)해서 제사를 받들게 하니, 양양히 그 위에 있는 것 같고 그 좌우에 있는 것 같으니라.
116	齊之爲言 齊也 所以齊不齊而致其齊也 明猶潔也 洋洋流動充滿之意 能使人畏敬奉承而發見昭著如此 乃其體物而不可遺之驗也 孔子曰其氣發揚于上 爲昭明蒸蒿悽愴 此百物之精也 神之著也 正謂此爾	
117	16-04 詩曰 神之格思 不可度思 約可射思	『詩經』에 이르기를,「신이 이르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
118	詩大雅抑之篇 格來也 約況也 射厭也 言厭怠而不敬也 思語辭	
119	16-05 夫微之顯 誠之不可揜 如此夫	대저 은미함이 나타나는 것이니, 誠(眞實無妄;진실무망)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로다.
120	誠者眞實無妄之謂 陰陽合散 無非實者 故其發見之不可揜 如此 ♥ 右第十六章 不見不聞 隱也 體物如在 則亦費矣 此前三章 以其費之小者而言 此後三章 以其費之大者而言 此一章 兼費隱包大小而言	
121	<17>	<제 17 장.> - 이 장은 孝와 같이 常을 행하는 멋진한 것을 미루어서 그 지극한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이니, 道의 씀이 넓되 그러한 까닭인 體되는 것이 隱微한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122	17-01 子曰 舜其大孝也與 德爲聖人 尊爲天子 富有四海之內 宗廟饗之 子孫保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순임금은 큰 효자이셨다! 德으로는 성인이 되셨고, 존귀한 것으로는 천자가 되셨으며, 부유하기로는 사해 안을 차지하시어, 종묘를 받들며 자손을 보존하시었다.」
123	子孫謂虞思陳胡公之屬	
124	17-02 故大德 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그러므로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봉록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명예)을 얻고, 반드시 그 壽를 얻느니라.
125	舜年百有十歲	
126	17-03 故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 故栽者 培之 傾者 覆之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낳음이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 두텁게 해주느니, 그런 고로 심은 것은 그를 복돋우고, 기울어진 것은 그를 쓰러뜨리느니라.
127	才質也 篤厚也 栽植也 氣至而滋息爲培	

	氣反而遊散則覆	
128	17-04 詩曰 嘉樂君子 憲憲令德 宜民宜人 受祿于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詩經』에 이르기를, 「훌륭한 군자의 밝고 아름다운 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들을 잘 이끌어서 녹을 하늘에서 받으셨도다. 보전하며 도와서 명하기를, '하늘로부터 거듭한다.'라고 하였다.
129	詩大雅假樂之篇 假當依此作嘉 憲當依詩作顯 申重也	
130	17-05 故大德者 必受命	그러므로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느니라.
131	受命者 受天命爲天子也 ♥ 右第十七章 此由庸行之常 抽之以極其至 見道之用廣也 而其所以然者 則爲體微矣 後二章亦此意	
132	<18>	<제 18 장.> - 이 장도 이른바 費·隱 중의 費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즉 周나라의 文王·武王·周公의 3代에 걸친 史蹟을 말하면서君子의 道의 用이 넓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133	18-01 子曰 無憂者 其惟文王乎 以王季爲父 以武王爲子 父作之 子述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오직 문왕이로다! 왕계를 아버지로 하고 무왕을 아들로 했으니, 아버지가 그 업을 일으키고 아들이 그것을 계승하였느니라.」
134	此言文王之事 書言王季其動王家 蓋其所作 亦積功累仁之事也	
135	18-02 武王 繢太王王季文王之緒 壹戎衣而有天下 身不失天下之顯名 尊爲天子 富有四海之內 宗廟饗之 子孫保之	무왕이 태왕·왕계·문왕의 뒤를 계승하여 한 번 戎衣(軍服)를 입어 천하를 차지하였으나, 자신은 천하에 나타난 명성을 잊지 않아, 존귀함으로는 天子가 되고,
136	此言武王之事 繢繼也 大王王季之父也 書云大王肇基王迹 詩云至于大王 實始翦商 緒業也 戎衣甲冑之屬 壹戎衣 武成文 言壹著戎衣以伐紂也	
137	18-03 武王 末受命 周公 成文武之德 追王泰王王季 上祀先公以天子之禮 斯禮也 達乎諸侯 大夫及士庶人 父爲大夫 子爲士 葬以大夫 祭以士 父爲士 子爲大夫 葬以士 祭以大 夫 期之喪 達乎大夫 三年之喪 達乎天子 父母之喪 無貴賤一也	부는 사해의 안을 차지하여, 종묘를 받들고 자손을 보존하였다.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았는데,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어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고, 위로 선공들을 천자의 예로써 제사하였으니, 이 예가 제후와 대부 및 사와 서민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아버지가 대부이고 아들이 士이면, 葬事(장사)는 대부의 예로 하고 제사는 士의 예로 했으며, 아버지가 士이고 아들이 대부이면, 장사는 士의 예로 하고 제사는 대부의 예로 했다. 期年喪은 대부에게까지 적용되고, 3년상은 천자에게까지 적용되었으니, 부모의 喪은 귀천이 없이 한 가지인 것이니라.
138	此言周公之事 末猶老也 追王蓋推文武之意 以及乎王迹之所起也 先公組紺以上至后稷也 上祀先公以天子之禮 又推大王王季之意 以及於無窮也 制爲禮法 以及天下 使葬用死者之爵 祭用生者之祿 喪服自期以下 諸侯絕 大夫降 而父母之喪 上下同之 推己以及人也 ♥ 右第十八章	
139	<19>	<제 19 장.> - 이 장도 앞장에 이어 군자의 道가 費한 까닭을 말하고 있다. 특히 17·18·19 장은 한 문장의

		흐름처럼 되어있다.
140	19-01 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무왕과 주공은 효도에 통달한 분들이로다!」
141	達通也 承上章而言 武王周公之孝 乃天下之人 通謂之孝 猶孟子之言達尊也	
142	19-02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무릇 효도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잊고, 선인의 일을 잘 이룩하는 것이라.
143	上章 言武王繼大王王季文王之緒 以有天下 而周公成文武之德 以追崇其先祖 此繼志述事之大者也 下文又以其所制祭祀之禮通于上下者 言之	
144	19-03 春秋 修其祖廟 陳其宗器 設其裳衣 薦其時食	봄과 가을에는 선조의 종묘를 수리하고, 종기를 진열하며, 의상을 갖추고, 철에 따른 음식을 올렸다.
145	祖廟天子七 諸侯五 大夫三 適士二 官師一 宗器 先世所藏之重器 若周之赤刀 大訓 天球 河圖之屬也 裳衣 先祖之遺衣服 祭則設之以授尸也 時食四時之食 各有其物 如春行羔豚膳膏香之類是也	
146	19-04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 序爵 所以辨貴賤也 序事 所以辨賢也 旅酬 下 爲上 所以逮 賤也 燕毛 所以序齒也	종묘의 예는 소와 목의 차례로 하는 것이고, 벼슬의 차례를 세우는 것은 귀천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며, 일의 차례를 세우는 것은 현명함(능력 있음)을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旅酬(여수)에 있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것은 천한 사람에게도 미치게(함께하게) 하기 위함이며, 燕毛는 나이의 차례를 위해서이니라.
147	宗廟之次 左爲昭 右爲穆而子孫 亦以爲序 有事於太廟 則子姓兄弟羣昭群穆 咎在而不失其倫焉 爵公侯卿大夫也 事宗祝有司之職事也 旅衆也 酬導飲也 旅酬之禮 賓弟子 兄弟之子 各舉觶於其長而衆相酬 蓋宗廟之中 以有事爲榮 故逮及賤者 使亦得以申其敬也 燕毛祭畢而燕則以毛髮之色 別長幼 爲坐次也 齒年數也	
148	19-05 跐其位 行其禮奏其樂 敬其所尊 愛其所親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그 위(先王의 자리)에 올라 그(선왕)의 예를 행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여 그 존엄한 바를 공경하고, 그 친히 여긴 것을 사랑하여 죽음 섬기기를 삶을 섬기듯 하고,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 섬기듯 하는 것이 효의 지극한 것이라.
149	踐猶履也 其指先王也 所尊所親先王之祖考子孫臣庶也 始死謂之死 既葬則曰反而亡焉 皆指先王也 此結上文兩節 皆繼志述事之意也	
150	19-06 郊使之禮 所以事上帝也 宗廟之禮 所以祀乎其先也 明乎郊使之禮 禮賞之義 治國	郊祭와 社祭의 예는 상제를 섬기는 까닭이고, 종묘의 예는 그 조상을 제사하는 까닭이다. 郊社祭의 예와 체상의 뜻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其如示諸掌乎	것이로다.
151	郊祭天 社祭地 不言后土者 省文也 禘天子宗廟之大祭 追祭太祖之所自出於太廟 而以太祖配之也 嘗秋祭也 四時皆祭 舉其一耳 禮必有義 對舉之互文也 示與視同 視諸掌言易見也 此與論語文意 大同小異 記有詳略耳 ♥ 右第十九章	
152	<20>	<제 20 장.> - 이 장의 시작도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舜·文王·武王·周公이 행한 道의 線上에 공자를 올려놓고, 공자의 道가 先人們의 道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17 장·18 장·19 장과 연계됨
153	20-01 哀公 問政	애공이 政事(정사)를 물으니,
154	哀公魯君 名蔣	
155	20-02 子曰 文武之政 布在方策 其人存則其政舉 其人亡則其政息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왕과 무왕의 정사는 木板(목판)과 竹簡(죽간)에 실려 있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정치는 소멸된다.」
156	方版也 策簡也 息猶滅也 有是君有是臣 則有是政矣	
157	20-03 人道敏政 地道敏樹 夫政也者 蒲盧也	사람의 道는 정사에 민감하고 땅의 道는 나무가 자라는데 민감하니, 무릇 정치라는 것은 창포와 갈대 같은 것이니라.
158	敏速也 蒲盧 沈括 以爲蒲葦 是也 以人立政 猶以地種樹 其成速矣 而蒲葦 又易生之物 其成尤速也 言人存政舉 其易如此	
159	20-04 故爲政在人 取人以身 修身以道 修道以仁	그러므로 정치를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는 데는 (군자의)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는 것은 道로써 하며, 道를 닦는 것은 仁으로써 하는 것이니라.
160	此承上文人道敏政而言也 爲政在人 家語 作爲政在於得人 語意尤備 人謂賢臣 身指君身 道者天下之達道 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得以生者 所謂元者善之長也 言人君爲政 在於得人 而取人之則 又在修身 能仁其身 則有君有臣而政無不舉矣	
161	20-05 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仁이란 사람(의 도리)이니, 어버이를 어버이로 받드는 것이 크고, 義란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크다. 친족과 친함을 낮추어 가는 것과 어진 사람을 높이는 등급(差等)이 禮가 생기는 바탕인 것이라.
162	人指人身而言 具此生理 自然便有惻怛慈愛之意 深體味之可見 宜者分別事理 各有所宜也 禮則節文斯二者而已	
163	20-06 (在下位 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矣)	#
164	鄭氏曰 此句在下 誤重在此	

165	<p>20-07 故君子 不可以不修身 思修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不知人 思知人 不可以 不知天</p>	<p>그러므로 군자는修身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수신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어버이를 섬기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알려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p>
166	<p>爲政在人 取人以身 故不可以不修身 修身以道 修道以仁 故思修身 不可以不事親 欲盡親親之仁 必由尊賢之義 故又當知人 親親之殺 尊賢之等 皆天理也 故又當知天</p>	
167	<p>20-08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p>	<p>천하에 통달한 道가 다섯이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셋이니, 말하기를, 군신이고, 부자요, 부부이고, 형제이며, 봉우의 사귐이니라.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달한 道이고, 知· 仁·勇 세 가지는 천하에 통달한 德이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니라.</p>
168	<p>達道者 天下古今所共由之路 卽書所謂五典 孟子所謂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是也 知所以知此也 仁所以禮此也 勇所以強此也 謂之達德者 天下古今所同得之理也 一則誠而已矣 達道雖人所共由 然 無是三德 則無以行之 達德 雖人所同得 然 一有不誠 則人欲間之 而德非其德矣 程子曰 所謂誠者 止是誠實此三者 三者之外 更別無誠</p>	
169	<p>20-09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 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 而行之 及其成功 一也</p>	<p>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며, 어떤 사람은 애써서 알게 되지만, 그 앞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편안해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로워서 행하며, 어떤 사람은 애써서 행하게 되지만, 그 공을 이루는데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니라.</p>
170	<p>知之者之所知 行之者之所行 謂達道也 以其分而言 則所以知者知也 所以行者仁也 所以至於知之成功而一者勇也 以其等而言 則生知安行者知也 學知利行者仁也 困知勉行者勇也 蓋人性雖無不善 而氣稟有不同者 故聞道有蚤暮 行道有難易 然能自強不息 則其至一也 呂氏曰 所入之塗雖異 而所至之域則同 此所以爲中庸 若乃企生知安行之資 爲不可幾及 輕困知勉行 謂不能有成 此道之所以不明不行也</p>	
171	<p>20-10 (子曰) 好學 近乎知 力行 近乎仁 知恥 近乎勇</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知(지혜)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仁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勇에 가까우니라.」</p>
172	<p>子曰二字 衍文 此言未及乎達德而求以入德之事 通上文三知爲知 三行爲仁 則此三近者 勇之次也 呂氏曰 愚者自是而不求 自私者 徇人欲而忘返 儒者甘爲人下而不辭 故好學非知 然足以破愚 力行非仁 然足以忘私 知恥非勇 然足以起懦</p>	

173	<p>20-11 知斯三者 則知所以修身 知所以修身 則知所以治人 知所以治人 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p>	<p>이 세 가지를 알면 곧 수신하는 바(것)를 알게 되고, 수신하는 바를 알게 되면 사람을 다스리는 바를 알게 되며, 사람을 다스리는 바를 알게 되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바를 알게 되느니라.</p>
174	<p>斯三者 指三近而言 人者對己之稱 天下國家 則盡乎人矣 言此以結上文修身之意 其下文九經之端也</p>	
175	<p>20-12 凡爲天下國家 有九經曰 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工也 柔遠人也 懷諸侯也</p>	<p>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아홉 가지의 經(常道)이 있으니, 말하면 몸을 닦는 것과, 어진 이를 높이는 것과, 친족을 친애하는 것과, 대신을 공경하는 것과, 뜻 신하를 이해하는 것과,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과, 백공을 오게 하는 것과, 먼 곳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제후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p>
176	<p>經常也 體謂設以身處其地而察其心也 子如父母之愛其子也 柔遠人所謂無忘賓旅者也 此列九經之目也 呂氏曰 天下國家之本 在身 故修身爲九經之本 然 必親師取友然後 修身之道進 故尊賢次之 道之所進 莫先其家 故親親次之 由家以及朝廷 故敬大臣 體君臣次之 由朝廷以及其國 故子庶民 來百工次之 由其國以及天下 故柔遠人 懷諸侯次之 此九經之序也 視君臣 猶吾四體 視百姓 猶吾子 此視臣視民之別也</p>	
177	<p>20-13 修身則道立 尊賢則不惑 親親則諸父昆弟 不怨 敬大臣則不眩 體群臣則士之報禮重 子庶民則百姓勸 來百工則財用足 柔遠人則四方歸之 懷諸侯則天下畏之</p>	<p>修身하면 道가 서고, 현자를 존경하면 迷惑(미혹)되지 않고, 親族(친족)을 親愛(친애)하면 모든 아버지와 형제가 원망하지 않고, 대신을 공경하면 眇惑(현혹)되지 않고, 뜻 신하를 이해하면 선비들의 깊은 예가 무거워지고,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들이 勸勉(권면)하고, 백공을 오게 하면 재물의 쓰임이 풍족하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면 사방이 彙依(귀의)하고, 제후들을 따르게 하면 천하가 두려워하느니라.</p>
178	<p>此言九經之效也 道立謂道成於己而可爲民表 所謂皇建其有極 是也 不惑謂不疑於理 不眩謂不迷於事 敬大臣 則信任專而小臣不得以間之 故臨事而不眩也 來百工 則通功易事 農末相資 故財用足 柔遠人 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塗 故四方歸 懷諸侯 則德之所施者博而威之所制者廣矣 故 曰天下畏之</p>	

179	<p>20-14 齊明盛服 非禮不動 所以修身也 去讒遠色 賤貨而貴德 所以勸賢也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時使薄斂 所以勸百姓也 日省月試 既廩稱事 所以勸百工也 送往迎來 嘉善而矜不能 所以柔遠人也 繼絕世 舉廢國 治亂持危 朝聘以時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p>	<p>齊明(재명) 盛服(성복)으로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修身하는 것이고, 謂訴(참소)를 물리치고 女色을 멀리하며, 財貨(재화)를 천하게 여기고 德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賢良(현량)함을 勸勉(권면)한 것이며, 그 자리를 높여주고 그 祿(녹)을 두텁게 해주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친족을 친애함을 권면한 것이고, 官屬(관속)을 많이 두어서 일을 맡기게 하는 것은, 大臣을 권면하는 것이며, 忠厚(충후)함과 信賴(신뢰)로써 녹을 厚(후)하게 하는 것은 士를 권면하는 것이고, 때를 맞춰 부리고 거두어들임을 薄(박)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이며, 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하여 飰廩(희름)을 일에 알맞게 하는 것은, 百工을 권면하는 것이고, 가는 것을 보내고 오는 것을 맞으며, 잘한 것은 아름답게 여기고 能(능)하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먼 곳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며, 끊어진 世代를 이어주고 없어진 나라를 일으켜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危殆(위태)한 것을 불들어주며, 朝聘(조빙)을 제 때에 하고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하며 오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은, 제후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p>
180	<p>此言九經之事也 官盛任使 謂官屬衆盛 足任使令也 蓋大臣 不當親細事 故所以優之者如此 忠信重祿 謂待之誠而養之厚 蓋以身體之 而知其所賴乎上者如此也 既讀曰餼 餼稟稍食也 稱事如周禮藁人職曰 考其弓弩 以上下其食 是也 往則爲之授節以送之 來則豐其委積以迎之 朝謂諸侯見於天子 聘謂諸侯使大夫來獻 王制比年一小聘 三年一大聘 五年一朝 厚往薄來 謂燕賜厚而納貢薄</p>	
181	20-15 凡爲天下國家 有九經 所以行之者 一也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9 경이 있으나,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니라.
182	<p>一者誠也 一有不誠 則是九者皆爲虛文矣 此九經之實也</p>	
183	<p>20-16 凡事 豫則立 不豫則廢 言前定則不跔 事前定則不困 行前定則不求 道前定則不窮</p>	무릇 일은 예비 되어 있으면 이루어지고, 예비 되어 있지 않으면 폐하게 되니, 말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막히지 않고, 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게 되며, 행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고로움을 당하지 않고, 道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궁하지 않게 되느니라.
184	<p>凡事指達道達德九經之屬 豫素定也 跡蹟也 疾病也 此承上文 言凡事皆欲先立乎誠 如下文所推是也</p>	
185	<p>20-17 在下位 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矣 獲乎上 有道 不信乎朋友 不獲乎上矣 信乎朋友 有道 不順乎親 不信乎朋友矣 順乎親 有道 反諸身不誠 不順乎親矣 誠身 有道 不明 乎善 不誠乎身矣</p>	<p>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데에 道가 있으니,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는 데에 道가 있으니,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데에 道가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에 道가 있으니, 善에 밝지 못하면</p>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186	此又以在下位者 抽言素定之意 反諸身不誠 謂反求諸身 而所存所發 未能真實而無妄也 不明乎善 謂不能察於人心天命之本然 而真知至善之所在也	
187	20-18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성실한 것은 하늘의 道요, 성실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니, 성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하게 되어 종용히(자연스럽게) 道에 적중하므로 聖人인 것이고, 성실함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善을 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라.
188	此承上文誠身而言 誠者真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 未能真實無妄而欲其真實無妄之謂 人事之當然也 聖人之德 漚然天理 真實無妄 不待思勉而從容中道 則亦天之道也 未至於聖 則不能無人欲之私 而其爲德 不能皆實 故未能不思而得 則必擇先然後 可以明善 未能不勉而中 則必固執而後 可以誠身 此則所謂人之道也 不思而得 生知也 不勉而中 安行也 擇善學知以下之事 固執利行以下之事也	
189	20-19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널리 배우고, 자세히(살펴서)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히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하여야 하느니라.
190	此誠之之目也 學問思辨 所以擇善而爲知 學而知也 篤行 所以固執而爲仁 利而行也 程子曰 五者廢其一 非學也	
191	20-20 有弗學 學之 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 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우면 능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고,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으면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하면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고,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하면 명확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며,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하면 독실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느니, 남이 한 번 해서 능해지면 나는 백 번을 해보고, 남이 열 번 해서 능해지면 나는 천 번을 해보느니라.
192	君子之學 不爲則已 爲則必要其成 故常百倍其功 此困而知 勉而行者也 勇之事也	
193	20-21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과연 이 道를 능히 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明哲(명철)해지고, 비록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라.

194 <p>明者擇善之功 強者固執之效 呂氏曰 君子所以學者爲能變化氣質而已 德勝氣質 則愚者可進於明 柔者可進於強 不能勝之 則雖有志於學 亦愚不能明 柔不能立而已矣 蓋均善而無惡者 性也 人所同也 昏明強弱之稟 不齊者 才也 人所異也 誠之者 所以反其同而變其異也 夫以不美之質 求變而美 非百倍其功 不足以致之 今以鹵莽滅裂之學 或作或輒 以變其不美之質 及不能變 則曰天質不美 非學所能變 是果於自棄 其爲不仁 甚矣 ♥ 右第二十章 此引孔子之言 以繼大舜文武周公之緒 明其所傳之一致 舉而措之 亦猶是爾 蓋包費隱 兼小大 以終十二章之意 章內 語誠始詳 而所謂誠者 實此篇之樞紐也 又按孔子家語 亦載此章而其文尤詳 成功一也之下 有公曰 子之言 美矣至矣 寡人實固不足以成之也 故其下 復以子曰 起答辭 今無此問辭而猶有子曰二字 蓋子思刪其繁文 以附于篇而所刪有不盡者 今當爲衍文也 博學之以下 家語無之 意彼有闕文 抑此或子思所補也歟</p>	
195 <p><21></p>	<제 21 장.> - 이 장은 앞 장에 인용된 공자의 '하늘의 道(天道)'와 '사람의 道(人道)'에 대한 說을 이어받아 子思가 말한 것이다. 이 장으로부터 32 장까지 12 장은 모두 子思 자신의 말이다. 그런데以下の 장은 모두 本 21 장의 뜻을 미루어 밝힌 내용들이다.
196 <p>21-01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p>	성실함으로 인하여 名哲(명철)해지는 것을 性(性品)이라 이르고, 名哲함으로 인하여 성실해짐을 教(가르침)라 이르나니, 성실하면 곧 명철해지고, 명철하면 곧 성실해지느니라.
197 <p>自由也 德無不實而明無不照者 聖人之德 所性而有者也 天道也 先明乎善而後 能實其善者 賢人之學 由教而入者也 人道也 誠則無不明矣 明則可以至於誠矣 ♥ 右第二十一章 子思承上章夫子天道人道之意而立言也 自此以下十二章 皆子思之言 以反覆推明此章之意</p>	
198 <p><22></p>	<제 22 장.> - 이장은 단적으로 誠을 말한 것으로, 誠에 의해서 밝혀지는 하늘의 道를 聖人의 道로써 설명한 것이다.
199 <p>22-01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 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p>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라야 능히 그(자기)의 性稟(성품)을 다할 수 있으니, 그(자기)의 성품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남의 성품을 다할 수 있고, 남의 성품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물의 성품을 다할 수 있으며, 사물의 성품을 다할 수 있으면 곧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곧 하늘과 땅과 더불어 셋이 될 수 있느니라.

200	<p>天下至誠 謂聖人之德之實 天下莫能加也 盡其性者 德無不實 故無人欲之私 而天命之在我者 察之由之 巨細精粗 無毫髮之不盡也 人物之性亦我之性 但以所賦形氣不同而有異耳 能盡之者 謂知之無不明而處之無不當也 賛猶助也 與天地參 謂與天地並立而爲三也 此自誠而明者之事也 ♥ 右第二十二章 言天道也</p>	
201	<23>	<p><제 23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말한 前章을 이어받아 성실해지려는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p>
202	<p>23-01 其次 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p>	<p>그 다음은 懇曲(간곡)한 지경을 이루는 것이고, 간곡하면 성실함이 있는 것이니, 성실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며, 뚜렷해지면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움직이며, 움직이면 곧 변화하고, 변화하면 곧 교화하니, 오직 천하에서 지극히 성실해야만 (남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라.</p>
203	<p>其次通大賢以下凡誠有未至者而言也 致推致也 曲一偏也 形者積中而發外 著則又加顯矣 明則又有光輝發越之誠也 動者誠能動物 變者物從而變 化則有不知其所以然者 蓋人之性 無不同 而氣則有異 故惟聖人能舉其性之全體而盡之 其次則必自其善端發見之篇而悉推致之 以各造其極也 曲無不致 則德無不實 而形著動變之功 自不能已 積而至於能化 則其至誠之妙 亦不異於聖人矣 ♥ 右第二十三章 言人道也</p>	
204	<24>	<p><제 24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논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하늘의 道는 하늘이 곧 聖人이라는 면에서 보는 것이다.</p>
205	<p>24-01 至誠之道 可以前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 見乎蓍龜 動乎四體 禍 福將至 善 必先知之 不善 必先知之 故至誠 如神</p>	<p>지성의 道는 앞일을 알 수 있으니, 국가가 장차 盛(성)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祥瑞(상서)가 있고,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妖孽(요얼)이 있어, 시와 귀에 나타나고 사체에 움직한다. 禍와 福이 장차 이르려면(닥치려면), 善을 반드시 먼저 알아보게 되고, 不善도 반드시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至誠은 귀신과 같은 것이라.</p>
206	<p>禎祥者福之兆 妖孽者禍之萌 著所以筮 龜所以卜 四體謂動作威儀之間 如執玉高卑 其容俯仰之類 凡此 皆理之先見者也 然 唯誠之至極而無一毫私偽留於心目之間者 乃能有以察其幾焉 神謂鬼神 ♥ 右第二十四章 言天道也</p>	
207	<25>	<p><제 25 장.> - 이 장은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p>
208	25-01 誠者 自成也 而道 自道也	<p>성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고, 도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p>
209	<p>言誠者 物之所以自成 而道者 人之所當自行也 誠以心言 本也 道以理言 用也</p>	
210	25-02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君子 誠之爲貴	<p>誠은 사물의 끝이자 처음이니 誠이 없으면 사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p>

211	天下之物 皆實理之所爲 故必得是理然後 有是物 所得之理既盡 則是物亦盡而無有矣 古人之心 一有不實 則雖有所爲 亦如無有 而君子必以誠爲貴也 蓋人之心 能無不實 乃爲有以自成 而道之在我者亦無不行矣	
212	25-03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故 時措之宜也	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써 물을 이루는 것이니, 자기를 이루는 것은 仁이고, 물을 이루는 것은 知로서 性의 덕이 되는 것이다. 안과 밖을 합치게 하는 것이 道이니, 그런 고로 제 때에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213	誠雖所以成己 然既有以自成 則自然及物 而道亦行於彼矣 仁者體之存 知者用之發 是皆吾性之固有而無內外之殊 既得於己 則見於事者以時措之而皆得其宜也 ♥ 右第二十五章 言人道也	
214	<26>	<제 26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말하고 있다.
215	26-01 故至誠 無息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그치는 일이 없다.
216	既無虛假 自無間斷	
217	26-02 不息則久 久則徵	그치는 일이 없으면 영원하고, 영원하면 징힘이 있느니라.
218	久常於中也 徵驗於外也	
219	26-03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징힘이 밖으로 나타나면 아득하고 멀어지며, 아득하고 멀어지면 넓고 두터워지며,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지느니라.
220	此皆以其驗於外者言之 鄭氏所謂至誠之德著於四方者 是也 存諸中者既久 則驗於外者益悠遠而無窮矣 悠遠故 其積也廣博而深厚 博厚故 其發也高大而光明	
221	26-04 博厚 所以載物也 高明 所以覆物也 悠久 所以成物也	넓고 두터운 만물을 싣는 것이고, 높고 밝은 것은 만물을 덮는 것이며, 아득하고 오랜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이라.
222	悠久卽悠遠 兼內外而言之也 本以悠遠致高厚 而高厚又悠久也 此言聖人與天地同用	
223	26-05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넓고 두터운 것은 땅을 짹하고, 높고 밝은 것은 하늘을 쫙하며, 아득하고 오랜 것은 끝이 없는 것이라.
224	此言聖人與天地同體	
225	26-06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이와 같은 것은 나타내지 않아도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며, 作爲(작위)함이 없어도 이루어지느니라.
226	見猶視也 不見而章 以配地而言也 不動而變 以配天而言也 無爲而成 以無疆而言也	
227	26-07 天地之道 可一言而盡也 其爲物 不貳 則其生物 不測	하늘과 땅의 道는 한 마디 말로 다할 수 있느니라. 그 物됨이 두 가지가 아니니, 곧 그 물을 생성시킴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228	此以下 復以天地 明至誠無息之功用 天地之道可一言而盡 不過曰誠而已 不貳所以誠也 誠故 不息而生物之多 有莫知其所以然者	

229	26-08 天地之道 博也厚也高也明也悠也久也	하늘과 땅의 道는 넓고, 두터우며, 높고, 밝으며, 아득하고, 오래인 것이라.
230	言天地之道誠一不貳 故能各極其盛 而有下文生物之功	
231	26-09 今夫天 斯昭昭之多 及其無窮也 日月星辰 繫焉 萬物 覆焉 今夫地一撮土之多 及其 廣厚 載華嶽而不重 振河海而不洩 萬物載焉 今夫山一券石之多 及其廣大 草木生之 禽獸居之 寶藏興焉 今夫水一勺之多 及其不測 鼉黿蛟龍魚鼈生焉 貨財殖焉	지금 저 하늘은 소소함의 많음이지마는,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매여 있고 만물이 덮여있느니라. 지금 저 땅은 한 줌 흙의 많음이지마는, 그 넓고 두터움에 이르러서는 화산을 싣고 있지마는 무겁지 않고, 강과 바다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새지 않으며, 만물이 실려 있느니라. 지금 저 산은 한 둑어리(주먹) 돌의 많음이지마는, 그 넓고 큼에 이르러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새와 짐승이 살며, 寶貨(보화)가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지금 저 물은 한 국자의 많음이지마는, 그 해아릴 수 없음에 이르러서는 큰 자라· 악어· 교룡· 물고기· 작은 자라가 생겨나고, 貨財(재물)이 번식하게 되느니라.
232	昭昭猶耿耿 小明也 此指其一處而言之 及其無窮 猶十二章及其至也之意 蓋舉全體而言也 振收也 券區也 此四條 皆以發明由其不貳不息 以致盛大而能生物之意 然天地山川 實非由積累而後大 讀者不以辭害意可也	
233	26-10 詩云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曰天之所以爲天也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 所以爲文也 純亦不已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명이 아아, 깊고 멀어서 그침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아마 하늘의 하늘 된 소이를 말한 것일 거고, 「아아, 나타나지 않은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라고 했으니, (이것은) 아마 문왕의 文 되신 소이와, 순수한 것이 또한 그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일 것이라.
234	詩周頌維天之命篇 於歎辭 穆深遠也 不顯猶言豈不顯也 純純一不雜也 引此以明至誠無息之意 程子曰 天道不已 文王純於天道亦不已 純則無二無雜 不已則無間斷先後 ♥ 右第二十六章 言天道也	
235	<27>	<제 27 장.> - 이 장은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236	27-01 大哉 聖人之道	위대하도다! 성인의 道여!
237	包下文兩節而言	
238	27-02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양양하게 만물을 발육시켜 그 높고 큼이 하늘에 달았도다.
239	峻高大也 此言道之極於至大而無外也	
240	27-03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여유 있게 크도다. 예의는 삼백이고, 위의는 삼천이로다.
241	優優充足有餘之意 禮儀經禮也 威儀曲禮也 此言道之入於至小而無間也	
242	27-04 待其人而後行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에 행하는 것이라.
243	總結上兩節	
244	27-05 故曰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그러므로 말하기를,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凝聚(응결)되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245	至德謂其人 至道指上兩節而言 凝聚也 成也	

246	<p>27-06 故君子 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p>	<p>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묻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넓고 큰 것을 이루고, 정밀하고 은미한 것을 다하며, 높고 밝은 것을 극진히 하고, 中庸으로 말미암으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며, 돈독하고 후하게 하여 예를 높이는 것이라.</p>
247	<p>尊者恭敬奉持之意 德性者 吾所受於天之正理 道由也 溫猶燭溫之溫 謂故學之矣 復時習之也 敦加厚也 尊德性 所以存心而極乎道體之大也 道問學 所以致知而盡乎道體之細也 二者修德凝道之大端也 不以一毫私意自蔽 不以一毫私欲自累 涵泳乎其所已知 敦篤乎其所已能 此皆存心之屬也 析理則不使有 毫釐之差 處事則不使有過不及之謬 理義則日知其所未知 節文則日謹其所未謹 此皆致知之屬也 蓋非存心 無以致知 而存心者 又不可以不致知 故此五句 大小相資 首尾相應 聖賢所示入德之方 莫詳於此 學者宜盡心焉</p>	
248	<p>27-07 是故居上不驕 爲下不倍 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默 足以容 詩曰 旣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p>	<p>그런 까닭으로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며, 아랫자리에 있어도 배반하지 않는다. 나라에 道가 있으면 그 말이 일어나기에 족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그 침묵은 용납되기에 족하니라. 『시경』에 말하기를, 「이미 밝고 또 슬기로워서 그 몸을 보존한다.」했으니, 그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p>
249	<p>興謂興起在位也 詩大雅烝民之篇 ♥ 右第二十七章 言人道也</p>	
250	<p><28></p>	<p><제 28 장.> - 이 장은 앞장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배반하지 않는다.'를 이어받아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p>
251	<p>28-01 子曰 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如此者 災及其身者也</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쓰이기를 좋아하고, 비천하면서 스스로 전일하기(자기 멋대로 함)를 좋아하며, 지금의 세상에 나서 옛날의 道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는 災害(재해)가 그 몸에 미치게 될 것이다.」</p>
252	<p>以上孔子之言 子思引之 反復也</p>	
253	<p>28-02 非天子 不議禮 不制度 不考文</p>	<p>천자가 아니면 예를 논의하지 못하고, 법도를 제정하지 못하고, 글(문자)을 考定(고정)하지 못하느니라.</p>
254	<p>此以下子思之言 禮親疎貴賤相接之禮也 度品制 文書名</p>	
255	<p>28-03 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p>	<p>지금의 천하가 수레는 궤를 같이하고, 글은 문자를 같이하며, 행실은 윤리(次序)를 같이 하니라.</p>
256	<p>今子思自謂當時也 軌轍迹之度 倫次序之體 三者皆同 言天下一統也</p>	
257	<p>28-04 雖有其位 苟無其德 不敢作禮樂焉 雖要其德 苟無其位 亦不敢作禮樂焉</p>	<p>비록 그 지위(천자의 자리)가 있어도 진실로 그만한 덕이 없으면 禮와 樂을 제정하지 못하고, 비록 그만한 덕이 있으나 진실로 그 지위(천자의 자리)에 없으면 또한 감히 禮와 樂을 제정하지 못하느니라.</p>
258	<p>鄭氏曰 言作禮樂者 必聖人在天子之位</p>	

259	28-05 子曰 吾說夏禮 杞不足徵也 吾學殷禮 有宋 存焉 吾學周禮 今用之 吾從周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禮를 말할 수는 있으나 기나라로서는 증명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내가 은나라의 禮를 배웠으나 송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내가 주나라의 禮를 배웠으니 지금에 그것이 쓰이는지라 나는 주나라(주나라의 禮)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셨다.
260	此又引孔子之言 杞夏之後 徵證也 宋殷之後 三代之禮 孔子皆嘗學之而能言其意 但夏禮 既不可考證 殷禮雖存 又非當世之法 惟周禮 乃時王之制 今日所用 孔子既不得位 則從周而已 ♥ 右第二十八章 承上章爲下不倍而言 亦人道也	
261	<29>	<제 29 장.> - 이 장은 27 장의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를 받아, 앞장과 연관 지어 다섯 번째로 人道를 論한 내용이다.
262	29-01 王天下 有三重焉 其寡過矣乎	천하에 王 노릇을 하는 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갖추어지면) 허물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로다!
263	呂氏曰 三重謂議禮 制度 考文 惟天子得以行之 則國不異政 家不殊俗 而人得寡過矣	
264	29-02 上焉者 雖善 無徵 無徵 不信 不信 民弗從 下焉者 雖善 不尊 不尊 不信 不信 民弗從	윗대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느니라.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 하더라도 존중받지 못하니, 존중받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느니라.
265	上焉者謂時王以前 如夏商之禮雖善 而皆不可考 下焉者謂聖人在下 如孔子雖善於禮 而不在尊位也	
266	29-03 故君子之道 本諸身 徵諸庶民 考諸三王而不謬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	그러므로 군자의 道는 그 자신에 근본을 두어 백성들에게 징험하고, 삼왕에서 살펴보아도 그릇됨이 없으며, 천지에 세워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후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
267	此君子指王天下者而言 其道卽議禮制度考索之事也 本諸身有其德也 徵諸庶民 驗其所信從也 建立也 立於此而參於彼也 天地者道也 鬼神者造化之迹也 百世以俟聖人而不惑 所謂聖人復起 不易吾言者也	
268	29-04 質諸鬼神而無疑 知天也 百世以俟聖而而不惑 知人也	귀신에게 물어봐도 의심이 없는 것은 하늘을 아는 것이고, 백세후의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라.
269	知天知人知其理也	
270	29-05 是故君子 動而世爲天下道 行而世爲天下法 言而世爲天下則 遠之則有望 近之則不 厥	이러한 까닭에 군자(天子)는 움직이면 世世로 천하의 道가 되고, 행하면 세세로 천하의 법도가 되며, 말하면 세세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군자가) 멀리 있으면 바람을 갖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
271	動兼言行而言 道兼法則而言 法法度也 則準則也	
272	29-06 詩曰 在彼無惡 在此無射 庶幾夙夜 以永終譽 君子 未有不如此而蚤有譽於天下者	『詩經』에 말하기를, 「저쪽에서도 미워하는 자 없고, 이쪽에서도 싫어하는 자 없다. 바라노니 밤낮으로 힘써서 끝내 영예가 계속되기를」이라고 했으니, 군자는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일찍이 천하의 영예를 누린 자는 없었다.

273	<p>詩周頌振鷺之篇 射厭也 所謂此者 指本諸身以下六事而言 ♥ 右第二十九章 承上章居上不驕而言 亦人道也</p>	
274	<30>	<p><제 30 장.> - 이 장은 네 번째로 하늘의 道를 말씀한 내용이다.</p>
275	<p>30-01 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p>	<p>공자께서는 壽임금과 順임금의 道를 祖述하시고, 문왕과 무왕의 法度를 憲章하시며, 위로는 天時를 律으로 따르시고, 아래로는 물과 흙의 이치를 따르셨느니라.</p>
276	<p>祖述者 遠宗其道 憲章者 近守其法 律天時者 法其自然之運 襲水土者 因其一定之理 皆兼內外該本末而言也</p>	
277	<p>30-02 辟如天地之無不持載 無不覆幬 辟如四時之錯行 如日月之代明</p>	<p>비유하면 하늘과 땅이 잡아주고 실어주지 않은 것이 없고, 덮어주고 감싸주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며, 비유하면 사계절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고, 해와 달이 교대하여 밝혀주는 것과 같으니라.</p>
278	錯猶迭也 此言聖人之德	
279	<p>30-03 萬物竝育而不相害 道竝行而不相悖 小德川流 大德敦化 此天地之所以爲大也</p>	<p>만물이 함께 자라도 서로 해치지 않으며, 道가 함께 행해져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작은 덕은 냇물처럼 흐르고, 큰 덕은 변화를 두텁게 하나니, 이것이 하늘과 땅이 위대한 소이인 것으니라.</p>
280	<p>悖猶背也 天覆地載 萬物並育於其間而不相害 四時日月 錯行代明而不相悖 所以不害不悖者 小德之川流 所以並育並行者 大德之敦化 小德者 全體之分 大德者 萬殊之本 川流者 如川之流 脈絡分明而往不息也 敦化者 敦厚其化 根本盛大而出無窮也 此言天地之道 以見上文取譬之意也 ♥ 右第三十章 言天道也</p>	
281	<31>	<p><제 31 장.> - 이 장은 앞 장을 받아 '小德川流'와 그로서의 至聖을 말한 것으로 하늘의 道에 관한 다섯 번째 논의이다.</p>
282	<p>31-01 唯天下至聖 爲能聰明睿知 足以有臨也 寬裕溫柔足以有容也 發強剛毅 足以有執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理密察 足以有別也</p>	<p>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총명과 예지가 있어 능히 (백성에게) 君臨할 수가 있으니, 너그러우며 넉넉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워서 容納됨이 있기에 족하고, 힘차고 굳세어서 固執함이 있기에 족하며, 莊重하고 中正하여 恭敬함이 있기에 족하고, 文彩와 道理를 綿密히 관찰하여 分別이 있기에 족하니라.</p>
283	<p>聰明睿知生知之質 臨謂居上而臨下也 其下四者 乃仁義禮智之德 文文章也 理條理也 密詳細也 察明辨也</p>	
284	31-02 淳博淵泉 而時出也	<p>(성인의 덕은) 두루 넓고 深遠(심원)한 근원이 있어서 때에 (알맞게) 나타나느니라.</p>
285	<p>淳博周徧而廣闊也 淵泉靜深而有本也 出發見也 言五者之德 充積於中而以時發見於外</p>	

286	31-03 淳博如天 淳泉如淵 見而民莫不敬 言而民莫不信 行而民莫不說	두루 넓은 것은 하늘과 같고, 淳遠(심원)한 근원은 연못과 같다. 나타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말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음이 없으며, 행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287	言其充積極其盛而發見當其可也	
288	31-04 是以 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 舟車所至 人力所通 天之所覆 地之所載 日月所照 霜露所隊 凡有血氣者 莫不尊親 故曰配天	이러므로 명성이 중국에 넘쳐흘러서 오랑캐에게까지 뻗어 미치게 되었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人力이 통하는 곳, 하늘이 덮여있는 곳, 땅이 싣고 있는 곳, 해와 달이 비추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의 무릇 혈기를 지닌 사람은 높이고 친애하지 않음이 없으니, 고로 말하기를, '하늘에 짹한다.'라고 하느니라.
289	舟車所至以下 蓋極言之 配天言其德之所及 廣大如天也 ♥ 右第三十一章 承上章而言小德之川流 亦天道也	
290	<32>	<제 32 장.> - 이 장은 30 장에서 나온 大德敦化의 天道를 논한 여섯 번째 장이다. 앞 장에서는 至聖의 德을 설명한 데 대해 본장에서는 至誠의 道를 설명하고 있다.
291	32-01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의 큰 도리를 경륜할 수 있으며,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울 수 있고, 하늘과 땅의 화육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의지하는 데가 달리 있겠는가?
292	經綸皆治絲之事 經者理其緒而分之 綸者比其類而合之也 經常也 大經者五品之人倫 大本者 所性之全體也 惟聖人之德 極誠無妄 故於人倫 各盡其當然之實 而皆可以爲天下後世法 所謂經綸之也 其於所性之全體 無一毫人欲之僞以雜之 而天下之道天變萬化 皆由此出 所謂立之也 其於天地之化育 則亦其極誠無妄者有默契焉 非但聞見之知而已 此皆至誠無妄自然之功用 夫豈有所倚著於物而後能哉	
293	32-02 胥胥其仁 淳淵其淵 浩浩其天	지극히 정성스런 것은 그 仁이고, 깊고 깊은 것은 그 못이며, 넓고 넓은 것은 그 하늘이니라.
294	肫肫 懇至貌 以經綸而言也 淳淵靜深貌 以立本而言也 浩浩廣大貌 以知化而言也 其淵其天 則非特如之而已	
295	32-03 苟不固聰明聖知達天德者 其孰能知之	진실로 귀가 밝고 눈이 밝으며 성스럽고 지혜로워서 하늘의 덕에 진실로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그(聖人)를 알겠는가?
296	固猶實也 鄭氏曰 唯聖人能之聖人也 ♥ 右第三十二章 承上章而言大德之敦化 亦天道也 前章 言至聖之德 此章 言至誠之道 然至誠之道 非至聖 不能知 至聖之德 非至誠 不能爲 則亦非二物矣 此篇 言聖人遷都之極致至此而無以加矣	

297	<33>	<p><제 33 장.> - 이 장은 全篇의 要旨를 簡略히 말씀하고 反復하여,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들어서 보인 뜻이 지극히 깊고 懇切하다. 첫 장이 天命의 性으로부터 論하기 시작하여 天地가 자리를 잡고 萬物이 자라나는 것으로, 곧 안에서 밖으로 설명해 간데 대하여, 이 마지막 장은 밖에서 안으로 차츰차츰 收斂해가서 안의 極致인 無聲無臭에까지 約해 간다. 이 장과 첫 장은 이처럼 서로 '안팎'을 이루고 있다.</p>
298	<p>33-01 詩曰 衣錦尚絅 惡其文之著也 故君子之道 閣然而日章 小人之道 的然而日亡 君子之道 淡而不厭 簡而文 溫而理 知遠之近 知風之自 知微之顯 可與入德矣</p>	<p>『시경』에 이르기를, 「비단옷을 입고 홀옷을 겹쳐 입었다.」라고 했으니, 그 文彩(문채)의 드러남을 싫어해서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道는 어두워 보이나 날로 밝아지고, 소인의 道는 분명해 보이나 날로 희미해지는 것이다. 군자의 道는 담담하고 싫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문채가 있으며, 온후하면서도 條理(조리)가 있는 것이다. 먼 것은 가까운 데서 (시작됨을) 알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며, 隱微(은미)한 것은 뚜렷하여짐을 알면, 더불어 德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p>
299	<p>前章 言聖人之德 極其盛矣 此復自下學立心之始言之 而下文 又推之 以至其極也 詩國風衛碩人 鄭之丰 皆作衣錦裯矣 裹絅同 禪衣也 尚加也 古之學者爲己 故其立心如此 尚絅故 閣然 衣錦故 有日章之實 淡簡溫 絅之襲於外也 不厭而文且理焉 錦之美在中也 小人反是 則暴於外而無實以繼之 是以 的然而日亡也 遠之近 見於彼者由於此也 風之自 著乎外者本乎內也 微之顯 有諸內者形諸外也 有爲己之心 而又知此三者 則知所謹而可入德矣 故 下文 引詩 言謹獨之事</p>	
300	<p>33-02 詩云 潛雖伏矣 亦孔之昭 故君子內省不疚 無惡於志 君子之所不可及者 其唯人之所不見乎</p>	<p>『詩經』에 이르기를, 「잠기어 비록 엎드렸으나 또한 매우 밝다(밝게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고로 군자는 안으로 반성해 보아 병(꺼림칙함)이 없어 뜻에 싫어함(부끄러움)이 없나니, 군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그 오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이로다!</p>
301	<p>詩小雅正月之篇 承上文 言莫見乎隱 莫顯乎微也 疾病也 無惡於志猶言無愧於心 此君子謹獨之事也</p>	
302	<p>33-03 詩云 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 故君子 不動而敬 不言而信</p>	<p>『詩經』에 이르기를, 「그대가 방안에 있음을 보니 屋漏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고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받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느니라.</p>
303	<p>詩大雅抑之篇 相視也 屋漏室西北隅也 承上文 又言君子之戒謹恐懼 無時不然 不待言動而後敬信 則其爲己之功 益加密矣 故下文 引詩 幷言其效</p>	
304	<p>33-04 詩曰 奏假無言 時靡有爭 是故君子 不賞而民勸 不怒而民威於鉄鍼</p>	<p>『詩經』에 이르기를, 「나아가 이르러 말이 없고, 그 때에는 다투는 일도 없다.」고 했으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근면하고, 성내지 않아도 백성들이 작도나 도끼보다도 무서워하느니라.</p>
305	<p>詩商頌烈祖之篇 奏進也 承上文而遂及其效 言進而感格於神明之際 極其誠敬</p>	

	無有言說而人自化之也 威畏也 鉄莖斫也 鐵斧也	
306	33-05 詩曰 不顯惟德 百辟其刑之 是故君子篤恭而天下平	『詩經』에 이르기를,「나타나지 않은 덕을 모든 제후가 그것을 본받는다.」했으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공경을 독실하게 해서 천하를 화평하게 하느니라.
307	詩周頌烈文之篇 不顯說見二十六章 此借引以爲幽深玄遠之意 承上文 言天子有不顯之德 而諸侯法之 則其德愈深而效悠遠矣 篤厚也 篤恭言不顯其敬也 篤恭而天下平 乃聖人至德淵微自然之應 中庸之極功也	
308	33-06 詩云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子曰 聲色之於以化民 末也 詩云 德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詩經』에 이르기를,「나는 밝은 덕이 소리와 색을 크게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소리와 색은 그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있어 말단이다.」라고 하시었다.『詩經』에 이르기를,「덕의 가벼움이 텔과 같다.」고 하니, 텔은 오히려 비교될 수 있거니와 「上天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했으니, 지극하도다.
309	詩大雅皇矣之篇 引之 以明上文所謂不顯之德者 正以其不大聲與色也 又引孔子之言 以爲聲色 乃化民之末務 今但言不大之而已 則猶有聲色者存 是未足以形容不顯之妙 不若烝民之詩所言德輶如毛 則庶乎可以形容矣 而又自以爲謂之貌 則猶有可比者 是亦未盡其妙 不若文王之詩所言上天之載無聲無臭 然後 乃爲不顯之至耳 蓋聲臭 有氣無形 在物 最爲微妙 而猶曰無之 故惟此可以形容不顯篤恭之妙 非此德之外 又別有是三等然後爲至也 ♥ 右第三十三章 子思引前章極致之言 反求其本 復自下學爲己謹獨之事 推而言之 以馴致乎篤恭而天下平之盛 又贊其妙 至於無聲無臭而後已言 蓋舉一篇之要而約言之 其反復丁寧示人之意 至深切矣 學者其可不盡心乎	

	中庸	子思 中庸. 禮記 제 31 편
313	<01>	<제 01 장.> - 朱子에 의하면 이 제 1 장은 子思가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전해 받은 그대로를 충실하게 祖述해서 포괄적인 주제로 한 것이다.
314	<02>	<제 02 장.> - 이 章부터 제 11 장까지의 10 장은 모두 <中庸>이란 것을 주제로 하여 제 1 장의 사상을 敷衍해서 解釋한다.
315	<03>	<제 03 장.> - 이 대목은 『論語』「雍也篇」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으나, 『論語』에는 '能'자가 없다.
316	<04>	<제 04 장.> - 이 장은 앞 장의 '백성이 능히 함이 적은 지 오래이다.'를 받아 공자의 다른 말씀을 들고 있는 내용이다.
317	<05>	<제 05 장.> - 이 장은 앞 장을 이어받아 '道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를 실마리로 다음 장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한다.
318	<06>	<제 06 장.> - 이 장에서는 유교적인 思考 방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319	<07>	<제 07 장.> - 이 장은 앞 장의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의 '大知'를 받고 있는 내용이다. 동시에 또 '밝지 못하다(不明)'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음 장으로 이행하는 실마리로 삼고 있다.
320	<08>	<제 08 장.> - 이 장은 顏回의 중용의 실천을 말하면서, 중용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21	<09>	<제 09 장.> - 이 장은 중용이 '平常의 道理'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의 認識과 實踐은 實相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22	<10>	<제 10 장.> - 앞 장에서는 중용을 택하여 지켜나가는 일이 극도로 困難함을 말하고, 그 극도로 곤란한 것을 극복하고 중용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强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示唆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强의 여러 가지 狀態와 考驗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23	<11>	<제 11 장.> - 子思가 孔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 1 장의 설명을 해온 것은 여기에서 그쳤다. 대체로 이 편의 큰 뜻은 知·仁·勇의 세 道德으로 道에 들어가는 문을 삼은 고로, 篇머리에 舜임금과 顏回와 子路의 일을 밝혔으며, 순임금은 知, 안회는 仁이고, 자로는 勇이니, 삼자에서 그 하나를 폐하면 道에 나아가는 것과 德을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 나머지는 <제 20 장.>에서 볼 수 있다.
324	<12>	<제 12 장.> - 이 장은 子思 자신의 말로서 첫 장의 '道는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해명한 내용이다.
325	<13>	<제 13 장.> - '道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앞 장의 이른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능히 하는 것'이고, '내가 능히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즉, '성인도 능치 못하는 것'이다.
326	<14>	<제 14 장.> - 子思의 말이기 때문에 章의 말머리에 '子曰,~' 이 없는 것이다.
327	<15>	<제 15 장.> - 이 장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중용의 道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328	<16>	<제 16 장.> - 이 장은 첫 장과 아울러 특히 유명한 장이며, 앞의 세 장은 그 넓은 것의 작은 것을 말한 것이고, 뒤의 세 장은 그 넓은 것의 큰 것을 말한 것이다.
329	<17>	<제 17 장.> - 이 장은 孝와 같이 傳을 행하는 떳떳한 것을 미루어서 그 지극한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이니, 道의 씀이 넓되 그러한 까닭인 體되는 것이 隱微한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330	<18>	<제 18 장.> - 이 章도 이른바 費隱 중의 費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즉 周나라의 文王·武王·周公의 3代에 걸친 史蹟을 말하면서君子의 道의 用이 넓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331	<19>	<제 19 장.> - 이 장도 앞장에 이어 군자의 道가 費한 까닭을 말하고 있다. 특히 17·18·19 장은 한 문장의 흐름처럼 되어있다.
332	<20>	<제 20 장.> - 이 장의 시작도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舜·文王·武王·周公이 행한 道의 線上에 공자를 올려놓고, 공자의 道가 先人們의 道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17 장·18 장·19 장과 연계됨
333	<21>	<제 21 장.> - 이 장은 앞 장에 인용된 공자의 '하늘의 道(天道)'와 '사람의 道(人道)'에 대한 說을 이어받아 子思가 말한 것이다. 이 장으로부터 32 장까지 12 장은 모두 子思 자신의 말이다. 그런데以下の 장은 모두 本 21 장의 뜻을 미루어 밝힌 내용들이다.
334	<22>	<제 22 장.> - 이장은 단적으로 誠을 말한 것으로, 誠에 의해서 밝혀지는 하늘의 道를 聖人의 道로써 설명한 것이다.
335	<23>	<제 23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말한 前章을 이어받아 성실해지려는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336	<24>	<제 24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논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하늘의 道는 하늘이 곧 聖人이라는 면에서 보는 것이다.
337	<25>	<제 25 장.> - 이 장은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338	<26>	<제 26 장.> - 이 장은 하늘의 道를 말하고 있다.
339	<27>	<제 27 장.> - 이 장은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340	<28>	<제 28 장.> - 이 장은 앞장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배반하지 않는다.'를 이어받아 사람의 道를 말하고 있다.
341	<29>	<제 29 장.> - 이 장은 27 장의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를 받아, 앞장과 연관 지어 다섯 번째로 人道를 論한 내용이다.
342	<30>	<제 30 장.> - 이 장은 네 번째로 하늘의 道를 말씀한 내용이다.
343	<31>	<제 31 장.> - 이 장은 앞 장을 받아 '小德川流'와 그로서의 至聖을 말한 것으로 하늘의 道에 관한 다섯 번째 논의이다.
344	<32>	<제 32 장.> - 이 장은 30 장에서 나온 大德敦化의 天道를 논한 여섯 번째 장이다. 앞 장에서는 至聖의 德을 설명한 데 대해 본장에서는 至誠의 道를 설명하고 있다.

345

<33>

<제 33 장.> - 이 장은 全篇의 要旨를 簡略히 말씀하고 反復하여,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들어서 보인 뜻이 지극히 깊고 懇切하다. 첫 장이 天命의 性으로부터 論하기 시작하여 天地가 자리를 잡고 萬物이 자라나는 것으로, 곧 안에서 밖으로 설명해 간데 대하여, 이 마지막 장은 밖에서 안으로 차츰차츰 收斂해가서 안의 極致인 無聲無臭에까지 約해 간다. 이 장과 첫 장은 이처럼 서로 '안팎'을 이루고 있다.